스피드 화장 뷰티 아이템

metro
메트로 2014년 12월 11일 목요일 제3114호 www.metroseoul.co.kr

겨울 스크린 별들의 귀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고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오른쪽) 등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0일 '땅콩 회항' 논란을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업무방해 및 항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작은 사진은 조현아 부사장. <관련기사 3면> /연합뉴스

대한항공 '경복궁 옆 호텔' 먹구름

'땅콩 리턴' 슈퍼 甲질에 청와대·정부 불가 방침
7성급 신축계획 조현아 부사장 총괄 알려져
문체부 "법 개정 추진 특정기업 위한 것 아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태로 그간 대한항공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던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재벌 오너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의해 불똥이 재계로 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소위 '조현아 사태'로 인해 대한항공의 숙원사업이던 경복궁 옆 특급호텔 건립이 무산될 확률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6월 삼성생명으로부터 옛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 3만7000여㎡를 2900억원에 사들여 7성급 호텔 신축을 추진해왔다.

당시 이 사업은 학교보건법상 학교 경계 반경 200m 이내에 관광호텔을 신·증축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덕성여중·고와 풍문여고 등 3개 학교가 주변에 있어 호텔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측은 지난 2010년 종로구에 특급호텔을 비롯한 다목적 공연장, 갤러리 등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을 신청했지만 중부교육청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불허했다.

조현아 부사장은 그간 호텔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밝혀왔다. 조 부사장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항공과 호텔사업은 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자신감을 표명했다.

이에 정부가 대한항공측에 호응해 법 개정에 나서며 이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해 8월 청와대 간담회에서 "특급관광호텔의 건립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건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화답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며 난관에 막힌 호텔사업에 희망이 비치는 듯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관광호텔도 유해시설이 없으면 학교 주변에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국회에 계류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었다.

정부가 '재벌 특혜' 시비에도 법 개정까지 추진하며 대한항공의 특급호텔 건립 사업을 지원했지만 이번 재벌 3세와 도를 넘은 '슈퍼 갑질'이 대중의 공분을 일으키며 호텔신축에 불똥이 튀었다. 특히 정부측에도 조현아 부사장이 호텔 신축계획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허가가 어려울 것이라는 기류가 흐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교육환경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막마저 없어져서는 안된다"면서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10일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조 부사장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조직에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조 부사장은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자리도 내놓을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날 자료를 내고 청와대와 정부에서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 프로젝트에 대해 불가 방침을 정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 사안은 ▲학교정화위 심의 ▲시구단위계획 변경 ▲호텔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종로구청, 중부교육청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에서 허용이나 불허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유해시설 없는 호텔이 학교 인근에 설치될 수 있도록 허용해 중소 비즈니스 호텔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특정한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두탁기자 kimdt@metroseoul.co.kr

4~6인 병실 의무화 70%

내년 상급종합병원

내년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4~6인실 의무 확보 비율이 70%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일 3대 비급여 개선 대책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개편을 위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등이 참여하는 의료단체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50% 수준인 4~6인실 의무 확보 비율을 내년 9월까지 70%까지 확보해야 한다. 또 내년 8월부터는 병원에서 선택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의 비율이 현행 80%에서 65%까지 축소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신설과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에 대한 수가 개편 방안도 논의됐으며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 개편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작업도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의료계와 함께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우수 의료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 www.metroseoul.co.kr 에서 확인하세요.

시청자는 뜸 들인 '진짜'를 원해

기자 수첩
김 학 철
<연예스포츠부 기자>

"지상파 드라마만의 위기라기보다는 한국 드라마 전반의 위기라 생각한다."

지난달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창조경제박람회' 특설무대에 오른 tvN 드라마 '미생'의 연출자 이재문 PD의 말이다. 이 자리에는 원작자 윤태호 작가도 함께 했다. 이 PD는 드라마의 성공 요인으로 촘촘한 디테일의 힘을 꼽았다.

웹툰 '미생'을 완결하기 위해 윤태호 작가는 4년이 넘는 기간을 한 작품에 몰두했다. 전작인 '이끼'에는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다. 두 작품 모두 영화와 드라마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작품성과 대중성 모두 자타공인 성공한 사례다.

지상파 3사의 2014년 드라마 성적표는 처참하다. 시청률 10%대만 넘겨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 오후 10시는 온 가족이 TV 앞에 모일 수 있는 황금시간대다. 이 골든타임에 자리 잡은 드라마는 각 방송사의 자존심과 같다.

KBS2의 월화드라마 '힐러'는 지난 9일 방송분에서 시청률 7.9%였으며 동시간대 방송되는 MBC '오만과 편견'은 10.6%를 기록했으며 SBS '비밀의 문'은 5.2%로 종영했다.

수목드라마도 큰 차이는 없다. 지난 4일 기준으로 KBS2 '힘의 얼굴'이 6.9%, MBC '미스터 백'이 10.4%, SBS '피노키오'가 10.2%를 기록해 너나 할 것 없이 자존심을 구겼다.

외국 드라마와 비교하며 국내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러브 라인이 왜 비판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남자 배우의 말이 떠오른다. 스타배우·성공한 연출진·러브라인이 있음에도 드라마가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청률을 올리는 나름의 공식과 기술로 무장한 이야기꾼들의 마법이 통하지 않게 됐다. 뜸을 들인 '진짜배기' 작품을 시청자는 원하고 있다.

"불장난 배후 밝혀질 것"

검찰 출석 정윤회 "국정개입 사실 아냐"

현 정권의 비선실세로 거론된 정윤회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정씨는 이날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한다"며 "국정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권 출범 후 여러 구설에 휘말렸던 정씨가 공식적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등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며,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정씨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근거로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한 세계일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고소인 신분이며 동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

세계일보는 지난달 28일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을 인용해 청와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이 정씨와 지난해 10월부터 정기적으로 만나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문건 작성자인 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 경정과 제보자인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등을 불러 조사하고 회동 장소로 알려진 식당 등을 압수수색해 '비밀 회동'은 없었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정씨에 대한 조사는 고소인에게 사실 관계를 최종 확인하는 절차에 무게를 두고 있어 검찰의 사건 수사는 사실상 문건 유출과 피고소인인 세계일보 조사만 남게 됐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께 기사를 작성한 세계일보 기자들을 불러 문건을 입수한 경위와 취재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문건 내용의 사실 관계는 윤곽이 드러난만큼 세계일보 측에 대한 조사는 문건을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와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조현정기자 h@metroseoul.co.kr

모습 드러낸 정윤회 '비선 실세'로 거론되는 정윤회씨가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고소인 자격으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롯데 아쿠아리움 최소 3곳 누수"

누수 현상이 발생한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대한 정부의 합동 안전점검에서 최소 세 곳 이상에서 물이 샌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 중 두 곳은 현재도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은 이에 따라 아쿠아리움 시설물 전반을 정밀점검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안전점검단 11명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제2롯데월드 지하 2층 아쿠아리움에서 한 시간에 걸쳐 1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점검단장인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예전 문제가 됐던 메인수조뿐 아니라 벨루가를 전시하는 대형 수조 양쪽에서도 물이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와 시공사인 레이놀즈사는 새로 지은 대형 수족관에서 미세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은 통상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점검단은 아쿠아리움에서 대규모 누수가 발생할 경우 바로 아래 지하 3, 4, 5층에 위치한 15만4000볼트 규모의 송배변전소에 물이 쏟아져 심각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주영기자 boa@

뉴스&뉴스

새정치연합 지도부 "진보당 해산 결정 반대"

●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며 "청와대와 정부는 이분법 진영논리에 매몰돼 반대하고 비판하는 세력을 적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긴급 신고전화 112·119 중 하나로 통합

● 모두 21개에 달하는 긴급 신고전화가 112나 119중 하나로 통합된다.

국민안전처는 10일 119(화재·구조·구급), 112(범죄), 122(해양), 117(학교 폭력) 등 21개 긴급 신고전화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통합 방안을 연구한 이원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0여 개의 긴급 신고전화를 112나 119중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 대타협기구 구성·자원외교 국조

여야 4대강사업은 이견

여야는 10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와 자원외교 실태 파악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또 부동산 관련 법 등 민생 경제 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다.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시하기로 했다. 이로써 야당이 요구한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가운데 2가지에 대한 국정조사가 유력해졌다. 이날 여야 합의에는 4대강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과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합의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추후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2+2 연석회의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뉴시스

잊을 만하면 도지는 '고질병'

Issue&View

/김두탁기자 kimdt@metroseoul.co.kr

국민 공분 확산… 일벌백계 한목소리

남양유업 대리점주 "받을 상황이 아니니까 얘기가하는 것 아니야 내가 지금"

남양유업의 영업사원 "받고 버리든가 - 버려 그러면"

남양유업 대리점주. "우슨 말을 그렇게 해 제품을 버리다니"

남양유업의 영업사원 "버리라고요. 망해 망하라고요 망해, 이 씨XXX"

지난해 3월 공개된 남양유업의 영업사원과 대리점주의 위 통화 내용은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며 소위 말하는 '슈퍼 갑질'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또 지난해 4월 포스코에너지 모 상무가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승무원을 폭행해 '라면 상무'라는 신조어로 국민의 공분을 샀으며, 베이커리업체 프라임베이커리의 강수태 회장은 호텔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는 직원의 뺨을 지갑으로 때려 '빵 회장'이라 불리며 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계속되는 슈퍼 갑의 횡포에 사회 전반에 걸쳐 '가진 자'와 '사회 지도층'의 반성을 촉구하는 여론이 이어졌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엔 '땅콩 회항' 사건이 터지며 슈퍼 갑질에 결정타를 날렸다.

지난 8일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기내 승무원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고성을 지르며 책임자를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것.

이 과정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대한항공의 항공기가 게이트로 다시 들어가 사무장을 내려놓느라 출발이 지연돼 250명의 승객이 영문도 모르고 불편을 겪었다.

이 사건은 한 승무원이 일등석에 타고 있던 조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건넸고 조 부사장은 "우선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면서 고성을 지르며 승무원을 혼냈다.

또 조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를 책임진 사무장을 불러 서비스 매뉴얼을 확인해보라고 요구했고 사무장이 태블릿컴퓨터에서 관련 규정을 즉각 찾지 못하자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지시했던 것이다. 당시 조현아 부사장이 음주 상태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조 부사장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으며 결국 대한항공의 모든 보직에서 사퇴했다. 하지만 부사장 직위와 계열사 대표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해 '무늬만 사퇴'라는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해당 비행기의 '램프리턴'과 관련해 기장이 관제탑과 주고받은 교신을 분석하는 한편 기장과 승무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어 조현아 부사장의 사법처리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07년 12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술에 취해 기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진 자'와 '사회 지도층'의 '슈퍼 갑질' 횡포는 더 이상 자기 반성 요구만으로는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지는 '슈퍼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일벌백계(一罰百戒)'만이 그나마 사회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0일 참여연대는 "서울서부지검에 조현아 부사장을 사퇴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도금공장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 50명 부상 10일 오후 대구 달서구의 한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차아염소산염이 누출돼 근무 중이던 근로자 50명이 부상했다. 소방당국이 구미화학센터의 조력와 장비를 출동시켜 현장에서 방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명훈 감독 "서울시에 사의 표명"

서울시립교향악단 정명훈 예술감독이 박현정 대표의 사무국 직원 상대 폭언·성희롱 논란 관련 10일 "이미 6주 전에 서울시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 예술감독은 이날 서울시 세종로 서울시향 연습실에서 리허설을 위해 모인 100여 명의 단원들에게 박 대표 문제와 관련 "이 건을 알게 된 지가 일년도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래 나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르는 사람이지만 이것은 인권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라면) 아무리 잘하든 그 자리에서 나가라고 한다"며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시에 6주 전에 이런 것을 보고는 못 견디겠다. 이 사람들(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려지. 그래서 그럼 나는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주영기자 boa@

서울메트로, 비상게이트 자동 열림 도입

지하철 역사 내 화재 발생 시 비상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 도입됐다.

서울메트로(서울지하철 1~4호선 운영)는 지하철역 화재 발생에 대비해 비상게이트의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화재 연동 개방시스템을 전 역사에 구축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역사에 화재가 발생하면 개집표기는 화재신호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개방됐지만 비상게이트는 직원이 별도의 조작을 통해 열어야 해 승객들의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다.

개선되는 게이트는 화재 시 연동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열려 빠르게 대피할 수 있고, 화재상황이 종료되면 잠금 상태로 전환돼 정상작동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속한 대피로가 확보되어 좁은 공간의 개집표기로 한꺼번에 몰린 승객들이 충돌하거나 넘어지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의도 파드득

공짜 비행기는 없다

의원들도 해외 출장을 간다. 나른 직장, 직종과 마찬가지로 공무로 가는 경우 당연히 항공권과 여비가 나온다.

장관급 대우로 비즈니스석이다. KTX나 비행기 이용이 공짜라는 설도 인터넷이나 일부 언론사 뉴스에 떠돌지만 사실이 아니다.

지역구 관리 때문에 KTX, 국내선 항공기 이용이 잦은데 요금은 당연히 지불한다. 물론 연단위 교통비가 지급되지만 실제 쓰는 비용보단 한참 모자란다. 따라서 정치후원금 등으로 모은 정치자금도 주로 교통비에 많이 쓰인다.

공항에서 VIP대우를 받는 건 맞다. 입출국 절차가 간단하고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문제삼는 이들도 많은데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VIP대우를 받는 걸 욕하는건 국민 스스로 자기비하하는 짓이다.

몇개 초 야당에선 귀빈실을 이용하지 말자는 혁신 방안을 내놓고 당시 김한길 대표 등이 실천을 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의원 자율에 달려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특권 내려놓기란 명목으로 나온 여러 안 중에 공항 귀빈실 이용 금지는 정말 쓸데 없는 포퓰리즘 방안이다.

국민의 대표가 장차관급 공무원 수백명이 받는 대우를 굳이 버릴 필요가 있는가. 국회의원이 차관급 공무원보다 못하단 건가.

해외 출장이 외유성이라는 비판 때문에 점점 의원 외교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떳떳한 공무 출장임에도 기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하고 조용히 다녀오는 경우도 있다. 이건 문제다. 의원 외교는 국회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은 해외 출장 자체가 언론 기사에 부정적 소재의 단골로 쓰이다보니 출장을 기밀 취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제 역할을 하느냐가 문제다. 귀빈실, 비즈니스석 사용, 해외 출장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국회의원은 앉아서 공부하고 서류 작성하는 것이 주업무가 아니다. 가끔 국회도서관에서 계민 앉으며 시간을 보내는 사례가 '공부하는 모범 의원' 이라며 미담기사로 나온다. 본질이 뒤바뀐 것이다. 의원도 공부가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부분은 보좌 조직의 조력을 받아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다.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보좌진의 존재 이유가 그것이다.

의원이 신경 못쓰는 부분을 챙기고 자료 조사하고 결과를 도출해 보고하면 의원은 그것을 바탕으로 결론내려 의정 활동에 반영한다.

국민들을 직접 만나고 청취하고 다니며 뜻을 모아야한다. 거기에는 외국사례 분석, 국제기구 방문 등 직간접 경험도 꼭 필요하다.

여야가 혁신안을 내놓으며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하고 있다. 지나친 면도 많다. 포퓰리즘이고 단시안적이다. 포퓰리즘은 민주공화국의 적이다. /송보배

한·이스라엘 친선협회장에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사진)이 9일 서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한국·이스라엘친선협회의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다. 한국·이스라엘친선협회는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우호를 증진하고 친선을 도모하는 민간협의이다.

인문학 '열려라 대학' 개설

인문학 협동조합(이사장 한민수 동국대 교수)은 2015년 1월 무의미한 방학생활을 보내는 예비대학생 및 그 학부모를 위한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 '열려라 대학'을 개설한다.

강좌는 2015년 1월 5일부터 19일까지 총 6회로 구성된다.

강좌는 내년 1월 5일부터 21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2~5시까지 총 6회 이뤄지며 수강신청은 opuniversity@naver.com로 하면 된다.

높이 9.5m X-마스 장식

metro Russia

세계 최대 기네스북 신청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마네쉬 광장에 높이 9.5m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장식이 등장,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장식은 오는 12일 모스크바 전역에서 시작되는 축제 '크리스마스 여행'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둥근 공 모양의 장식은 아름다운 조명으로 보는 이에 탄성을 자아낸다.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한 라리사 메트레벨리는 "트리 장식에 총 9.5km 길이의 조명이 사용됐다"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기네스북 등재를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예전에도 모스크바 곳곳에 대형 크리스마스 장식이 설치된 적이 있지만 이렇게 크고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줄 예상하지 못했다"며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호응이 뜨겁다"고 덧붙였다.

트리 장식 내부에는 시민이 쉬어갈 수 있도록 벤치도 설치돼 있다. 한 시민은 "안에서 보는 트리 장식은 더 멋지다. 환상적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며 감탄했다.

/[illegible] 기자·정리=조선미기자

보트 경기 400명 참가 성황

metro France

최근 파리 센 강에서 스탠드업 패들 보드 경기가 열렸다.

본 대회를 주최한 단체들은 올해 경기에 400여 명의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작년보다 참가 인원수가 100명 이상 늘었다.

날씨는 포근했고 참가자들은 보드 위에 서서 힘차게 노를 저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경기 코스는 13구의 프랑수아 미테랑 도서관을 지나 15구의 자벨 역까지다. 선수들은 초보자를 위한 11km 코스와 시테 섬 주변을 돌아야 하는 전문 선수를 위한 13.5km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경기를 마쳤다.

/[illegible] 인턴기자

흡연 제한 벌금 6억5000만원

metro Brazil

Ministro da Saude anuncia

브라질에서 흡연 제한 관련 법안이 시행됐다.

알톤 쉬오루 보건부 장관은 최근 흡연 제한 법안과 관련된 상세 브리핑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 내용에는 실내 흡연 및 담배 광고 제한 그리고 담배 포장지 측면과 뒷면에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표시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주점, 식당, 대학교, 건물의 공공 장소, 호텔, 극장 등의 건물 실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을 어기는 상점은 최소 2000 헤알(87만원)에서 150만 헤알(6억5524만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며 영업 금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상 파울루의 경우 2009년부터 이미 같은 내용의 법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벌금 징수 건수가 2만9000건을 기록한 바 있다.

/[illegible] 인턴기자

'물고문' 등 개발에 900억

미국 CIA 보고서 공개 일파만파…새 기술 위해 거액 투자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미 중앙정보국(CIA)의 테러 용의자 고문 실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CIA가 8100만 달러(약 898억원)를 들여 고문 기술을 개발한 정황도 드러났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 정보위원장은 이날 기밀로 분류된 총 6800쪽 분량의 내용을 약 500쪽으로 요약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는 "알카에다 대원을 상대로 한 고문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에는 2001년 9·11 사태 이후 유럽과 아시아의 비밀 시설에 수감된 알카에다 대원에게 자행된 CIA의 고문 실태가 상세히 나와 있다. 성고문과 물고문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CIA는 고문으로 테러 관련 단서나 정보는 제대로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이 9일(현지시각)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CIA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심리학 박사 두 명이 만든 외주 업체를 고용, 고문 기술을 담은 심문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도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심리학자들은 '물고문'(대상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눕힌 다음 얼굴에 물을 붓는 행위)과 '곤충 고문'(좁은 상자에 대상자를 가두고 곤충을 넣는 것) 등 고문 기술 10개를 알카에다 구금자들에게 실제로 사용했다.

이들은 총 20개의 고문 기술을 개발했다. 하지만 고문 대상자를 모의로 매장하는 방법 등 10개 기술은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미 법무부의 허가가 나지 않았다. 당초 CIA는 1억8000만 달러(약 1996억원)에 고문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맺었지만 프로그램이 2009년에 중단돼 8100만 달러만 지급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보고서 공개를 반기며 앞으로 고문을 철저히 금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CIA의 가혹한 심문 기법은 미국과 미국인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다. 내가 취임하자마자 고문을 금지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오바마 행정부는 보고서 공개로 국제 테러 집단의 보복 공격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해외 외교 공관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다.

/조선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호킹 사랑 이야기 영화로 9일(현지시간)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그의 일생을 다룬 영화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의 시사회에서 출연 배우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이 영화는 호킹 박사와 그의 첫번째 아내였던 제인 와일드의 사랑이야기를 담고 있다. /AP 연합뉴스

국민 입과 귀 국가가 관리?

일본에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논란을 일으킨 특정비밀보호법(특정비밀법)이 10일 시행됐다.

특정비밀법은 방위,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와 4개 분야 55개 항목의 정보 중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한 것이다. 공무원과 정부와 계약한 기업 관계자가 비밀을 누설한 경우 최고 징역 10년에 처해진다.

5년마다 비밀 지정을 갱신하고 원칙상 30년이 지나면 비밀 지정이 해제된다. 다만 내각이 승인한 경우 60년까지 비밀 지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외무성, 방위성, 경찰청 등 19개 행정기관은 특정비밀 지정 작업을 시작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외교, 국방과 관련한 46만여 건이 특정비밀로 지정될 전망이다.

특정비밀법이 시행되자 일본 주요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공무원의 공익적인 제보와 언론 취재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정부가 비밀지정 권한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창설에 맞춰 외국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비밀법 제정을 추진했다.

/조선미기자

40대는 교육비·노후자금 균형 중요

은퇴설계, 20~30대 올바른 소비 습관·50대는 부동산 50% 이하로

금융가 사람들

■ 윤원아 삼성생명 책임연구원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로 진입하면서 행복한 노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은퇴설계는 가능할까?

윤원아(사진)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변화하는 노후준비 시장에 대한 이해와 세대별로 세분화된 은퇴설계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연구원은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도 노후에 대한 관점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80년대 중반 선진국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은퇴시기가 되자 '앙코르 커리어'라는 말이 탄생했다"며 "이를 직역하면 다시 한 번 직업을 갖자'라는 뜻으로 은퇴 후 새로운 일의 개념, 즉 재미있는 놀이같은 일이면서도 의미있는 일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선진국의 변화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평균수명이 약 65세였던 1980년대의 경우 55세까지 일하고 퇴직해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자녀들의 돌봄을 받으며 여생을 보내는 것이 은퇴 후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현재는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 '100세 시대'를 코앞에 두면서 자녀에 의존하기 보다 독립적인 제2의 삶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독립적인 삶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소비활동을 위해 노후설계를 통한 노후자금 마련의 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기존에는 '저축'을 통한 목돈 마련이 주요 관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축적된 돈을 남은 여생동안 안정적으로 분배해 사용할 지에 대해 고민하는 '인출'로 소비자의 관심이 옮겨 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윤 연구원은 세대별 다양한 은퇴설계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20~30세대는 올바른 소비 습관을 갖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사회 초년기에는 인생 전체를 펼쳐 놓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저축 여력과 기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노후에 심각한 재무적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40대는 적극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시기는 전체 연령대에서 소득이 정점에 있으면서도 지출도 정점을 차지할 때"라며 "질병관리와 조기퇴직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자녀 교육비 지출과 노후준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50대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은퇴를 앞둔 시기인 만큼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고 현재 거주지를 축소해 여유목돈으로 연금 등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며 "의료비 등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비상자금으로 쓸 수 있는 자금도 필요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준비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은퇴 후 삶에 대해 "2011년 서울대 노화고령사회 연구소에 따르면 '은퇴 후 가장 염려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대답이 가장 많았다"며 "이를 위해 젊은 시기부터 꾸준히 노후설계를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시상식을 마치고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왼쪽 다섯번째)과 장옥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왼쪽 세번째), 지홍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왼쪽 여섯번째)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업은행 제공

기업은행, 7개 기관에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시상

IBK기업은행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제4회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시상식'을 열고 취약계층 역량 강화 멘토링 활동에 우수한 7개 기관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휴먼네트워크 멘토링'은 재능과 역량을 갖춘 멘토와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일대일로 연결해 주는 사업으로, 기업은행과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1년부터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 멘토링 기관을 후원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는 매년 포상을 하고 있다.

올해의 최우수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은 화상환자 간의 만남으로 상처 치유와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한 재단법인 베스티안 화상후원재단(이사장 설수진)이 수상했다.

IBK기업은행장상은 금천노인종합복지관과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이 받았다.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약물관리 코디네이터를 활용해 저소득 만성질환자의 약물오남용 예방 프로그램을 전개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화 그리기 수업을,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은 중증여성장애우와 공예가 여성장애우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이밖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뇌병변장애인복지관, 진남장애인종합복지관에게 수여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일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은행을 만들고 개인별 맞춤형복지를 위한 정부3.0 실천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란 기자 ...

"車보험료·주유 할인 카드 한장에"

신한카드-삼성화재

신한카드는 10일 삼성화재와 손잡고 자가운전자를 위한 '삼성화재 애니카 다이렉트 GS칼텍스 신한카드 Shuttle(이하 삼성화재 신한카드)'를 출시했다.

자동차 보험료와 주유 할인 등을 주력 서비스로 제공하는 삼성화재-신한카드는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를 20만원 이상 결제하면 10%(최대 3만원)를 결제일에 할인해 준다.

발급 첫 해에는 이용 금액에 상관없이 두 번째 해부터는 전년 신용판매(일시불+할부) 이용금액이 400만원 이상일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GS칼텍스 주유소에서 주유 시 리터당 최고 100원이 할인된다.

주유대금 할인은 1일 2회, 1회 최고 15만원, 월 30만원까지의 주유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주유와 같은 기준으로 전월 신용판매 이용금액이 100만원·50만원·30만원 이상이면 버스와 지하철, 택시 이용금액의 7%(1만원)·5%(7000원)·3%(5000원)를 각각 할인해 준다.

버스와 지하철은 신한카드의 후불교통 서비스가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이용가능하다. 택시는 티머니나 eb 단말기가 설치된 차량에서 이용한 금액만 할인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롯데월드와 서울랜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본인 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신한카드는 삼성화재-신한카드 출시를 기념해 오는 12월 말까지 카드를 발급 받고 삼성화재 자동차보험료를 3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들은 GS칼텍스 주유권 2만원을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박미란 기자

삼성전자 B2B 무선사업부로 통합

가전·모바일·부품 등 3부문 체제 유지… 효율성 높여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 대응력과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삼성전자는 B2B(기업간거래)사업을 무선사업부로 이관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실적 악화의 요인으로 꼽히는 IT·모바일(IM) 부문의 인력 재배치와 흡수 합병하는 내용을 골자로 내세웠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3명의 대표이사가 소비자가전(CE), IT·모바일(IM), 부품(DS)을 나누어 운영하는 현 사업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단 현장 조직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를 줬다.

먼저 글로벌B2B센터와 함께 콘텐츠·서비스를 담당하는 미디어솔루션센터(MSC)의 무선관련 업무도 무선사업부로 이관되며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무선사업부의 권한을 강화하게 됐다. B2B영역을 무선사업부로 이관한 것은 B2B 사업 역량을 모바일 B2B 일류화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또 빅데이터 센터와 소프트웨어센터는 통합됐고 미디어솔루션센터 아메리카는 북미총괄로 흡수됐다.

이같은 조직개편에 따라 글로벌B2B센터를 이끌던 김석필 부사장은 무선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으로 보직 변경됐고 무선사업부 기술전략팀장인 고동진 부사장은 개발실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조직도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미국에서 운영하던 소비자가전(CE) 사업 중심의 뉴저지 소재 SEA법인과 IT·모바일(IM) 사업 중심의 댈러스 소재 STA 법인은 SEA로 단일화해 뉴저지에서 통합 본사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10개 지역총괄 중 2개 총괄 자리도 바뀌었다.

구주총괄이었던 이선우 부사장은 고문으로 물러나고 생활가전사업부 전략마케팅팀장이었던 엄영훈 부사장이 자리를 이어받았다. 엄 부사장 후임으로는 서남아총괄을 맡고 있던 박병대 부사장이 선임됐다. 박 부사장이 떠난 자리는 중남미총괄 SELA법인장인 홍현칠 전무가 맡는다.

삼성전자는 "현 사업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장 조직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폭의 변화를 줬다"며 "본격적인 도약을 위한 재정비 작업을 마무리해 경영목표 달성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반도체 실적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문(DS)은 조직 변화를 최소화하고 메모리 사업의 고수익 기조를 유지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market index <10일>

- 코스피 1945.58 (-25.38)
- 코스닥 541.88 (-4.01)
- 금리 2.18 (변동없음)
- 환율 1103.90 (-5.10)

뉴스&뉴스

친환경 식판으로… 10일 서울 인사동 쌈지길 아트센터에서 모델들이 SK케미칼이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만든 '에코젠 식판'을 선보이고 있다. /SK케미칼 제공

줌닷컴 영문 검색 강화

● 줌닷컴에서 영문 검색어를 입력하면 구글의 영문 웹 문서 검색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검색 포털 줌닷컴은 영문 검색 품질 향상을 위해 구글 웹 검색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내 검색 서비스의 취약점으로 지적된 영문 웹 문서 검색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줌 검색창에 'Black Friday(블랙 프라이데이)'를 입력했을 때 기존에는 국내 웹 문서 위주로 노출이 됐지만 이제는 영미권의 쇼핑 정보까지 접할 수 있다. /정문경기자

'갤럭시 알파' 34% 인하

● LG유플러스가 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알파(SM-G850L)'의 출고가를 인하했다고 10일 밝혔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갤럭시 알파의 출고가를 이동통신사 최초로 34% 인하해 49만5000원에 판매한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 고객들은 최대 25만원의 지원금(LTE8 무한대 89.9 요금제 기준)을 제공받는 경우 갤럭시 알파를 24만5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이재영기자

연금복권520 제180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4조	412878
		5조	695743
2등	1억원	1등의 앞뒤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554549
4등	100만원	각조	60701
5등	2만원	각조	995
6등	2000원	각조	2111
7등	1000원	각조	34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업·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8 3
독자센터 02)721-9801
2005년 1월 31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58

제일모직 오늘까지 청약 올해 기업공개시장의 마지막 대어인 제일모직의 공모주 청약이 10일 시작됐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DB대우증권 본사 영업부를 찾은 고객이 제일모직 공모 청약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말기 완전자급제법 내년 1월 발의

야 "단통법 한계 뚜렷"…정부·이통시장 반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으로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한계가 뚜렷하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기본요금제 폐지,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국내외 차별판매 금지 등이 시급하다."

그동안 단발적으로 진행돼 온 휴대전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증가 원인과 인하 방안 종합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준비 중이며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전병헌 의원이 이를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TV를 사서 방송사업자를 선택해 가입하듯이 소비자가 단말기를 자유롭게 구입해 통신사에 가입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소비자가 이통사 요금제에 가입하면서 단말기를 사는 구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보조금을 앞세워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최신 단말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제값을 받고 단말기를 파는 행태를 지속해왔다.

안 실장은 "유럽권처럼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가격인하나 요금할인이 되면서도 제조사의 장려금이나 이통사의 지원금 등 보조금 자체가 사라지게 돼 현재와 같은 소비자 차별이나 요금제간 차별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유착을 끊고 단말기 판매와 요금제 설계에 집중하도록 해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와 이통시장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수십년간 형성된 이동시장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하는 일이라며 반기지 않고 있다.

백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완전자급제 자체가 대기업 없이 작은 유통망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유통 종사자들이 단말기만 판매할 때 수익은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하고 따로 개통해야 하는 구조적인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에는 보조금 상한제로 절감된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과 늘어난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줄 직접적인 수단이 미비하다"며 "기본요금 폐지, 분리요금제 요금할인율 대폭 인상으로 요금은 내리고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출고가 인하, 공급구조 다변화 등을 통해 단말기 가격거품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영기자 ly04@

체감실업률 10.2%

공식 통계 3배 넘어

체감실업률이 공식실업률의 3배가 넘는 10.2%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596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만8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0.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포인트 올랐다.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5.9%로 같은 기간 0.6%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구직활동 인구가 늘면서 실업률도 오르는 추세다. 11월 실업률은 3.1%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올라갔다. 청년(15~29세) 실업률도 7.9%로 같은 기간 0.4%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 수는 81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8000명(16.8%) 증가했다.

하지만 11월에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지만 추가취업을 원하며 가능한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34만6000명, 잠재취업가능자는 4만4000명, 잠재구직자는 170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모두 포함해 계산한 체감 실업률은 10.2%다. 이는 한달 전보다 0.1% 포인트 오른 수치다.

체감 실업 상황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는 5월 10.3%, 6월 10.4%, 7월 10.7%, 8월 10.6%, 9월 10.4% 등으로 반년 내내 10%를 웃돌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식약처 인증
랑스크림

"연말, 주머니 걱정 덜어 드릴게요"

카드사마다 캐시백 등 이벤트 풍성

직장인 김경훈(34)씨는 연말이 다가올 수록 겁이 난다.

올해도 송년회 등 각종 모임과 크리스마스 등을 맞아 선물 구입에 주머니가 가벼워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연말이면 평소보다 2배 이상 지출하는 김씨의 부담을 덜 방법은 없을까.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들은 각종 모임과 선물 구입 등 씀씀이가 커지는 연말을 맞아 캐시백과 상품권 제공 등 고객의 주머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요인을 속속 내놓고 있다.

자사 카드 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캐시백과 할인 혜택을 통해 고객의 로열티를 강화하기 위한 복안이다.

KB국민카드는 기프트카드와 캐시백, 항공권·놀이공원 할인 등을 제공하는 '아낌없이 드리는 겨울 혜택 -쉬시 페스티벌' 이벤트를 실시한다.

최대 100만원까지 캐시백 해주는 이번 행사는 이달 한달간 KB국민카드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또는 ARS를 통해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열린다.

고객은 매주 금요일과 주말, 크리스마스이브와 크리스마스에 KB국민카드로 이용한 합산 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최고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 고객을 위한 행사도 마련됐다. 오는 28일까지 행사에 응모한 후 체크카드(기업체크 비씨플러스 프리미엄스카드 제외)로 5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이용금액의 100%(최대 100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아울러 31일까지 인터넷쇼핑 업종과 학원 업종에서 업종별로 10만원 이상 결제 시 각각 5000원이 캐시백된다. 같은기간 연말 가족 나들이를 위한 국제선 항공권과 놀이공원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현대카드는 할인과 포인트 결제 등 M포인트 사용 혜택을 담은 '50% M포인트 Special-쇼핑' 행사를 진행한다.

M포인트란 카드 사용 시 사용액의 0.5~3.0%가 적립되는 포인트로, 고객은 온·오프라인 주요 쇼핑몰에서 구매액의 50%를 M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행사는 오는 25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어 열린다. 온라인 쇼핑 주간에는 티켓몬스터(12/10, 12/17)와 모바일 11번가(12/11~12), 신세계몰·이마트몰(12/13~14), CJ몰(12/15~16) 그리고 롯데닷컴·롯데인터넷쇼핑몰(12/17~19)과 롯데홈쇼핑(12/19~21 TV상품)이 순차적으로 참가한다. 오프라인 쇼핑 주간인 18일부터 25일까지는 휴플러스, GS수퍼마켓, CU에서 50% M포인트 혜택을 준다.

할인쿠폰과 청구할인을 포함한 추가 혜택도 있으며 슈퍼와 편의점을 제외한 행사 참가 쇼핑몰에서는 2~5개월 무이자할부도 활용 가능하다.

삼성카드는 송년모임을 위한 굿바이 2014 송년모임 웰은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31일까지 일반음식점과 카페, 주점 등 음식점 업종에서 행사 응모 후 이용조건을 달성한 고객은 호텔 숙박과 어린이 이용권, 외식 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용 조건은 ▲삼성카드로 음식점 1회 이상 사용 ▲음식점 누적 5만원 이상 결제 ▲음식점 누적 30만원 이상 이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 이벤트 기간동안 음식점에서 30만원 이상 이용시 세가지 이용 조건에 모두 해당돼 중복 추첨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우리카드는 연말 음식점에서 1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에게 외식상품권을 제공한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2015명은 추첨을 통해 최고 50만원 상당의 CJ외식상품권을 선물받을 수 있다.

/이봉준기자

/각 사 제공

KB금융 사외이사 7명, 내년 3월 전원 사퇴

LIG손보 인수 '청신호'

KB금융 지주 사외이사 7명이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KB금융 사외이사들은 10일 명동 국민은행 본점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지난주에 이어 자신들의 거취 문제를 재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KB금융의 리스크관리위원장인 황건호 이사를 비롯해 김영진·조재호·김명직·이종천·김영과 이사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KB금융 사외이사들은 경영연속성 을 고려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현재 남아있는 7명의 사외이사 전원이 물러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이 내년 주총 때까지는 사외이사직을 수행하기로 한 이유는 신임 사외이사를 선출하려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KB금융 측은 설명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는 대표이사인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사외이사 4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또 필수 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앞서 KB금융 사외이사들은 지난 5일 확대경영전략위원회를 끝낸 뒤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승의 이사는 즉각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사외이사직과 감사위원회 위원에서 물러났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이경재 전 이사회 의장이 사퇴한 바 있다.

이로써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이미선기자

탈북청년 취업학교에 3000만원 후원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9일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탈북청년 취업학교 '두드림아카데미'에 총 3000만원을 후원했다고 10일 밝혔다. 두드림아카데미는 20~30대 탈북청년들을 위한 직업교육 전문학교로 이날 수은이 전달한 후원금은 학교의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임차료와 난방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진 왼쪽부터) 신덕용 수출입은행 사회공헌단장, 김영우 두드림아카데미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제공

LIG손보, 18일 '오메불방 콘서트'

LIG손해보험은 오는 18일 서울 강남역 LIG아트홀에서 '오메불방 콘서트'를 개최한다.

미니클래스 제8탄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여성 운전과 자궁 건강, 자녀 성장과 척추 건강법 등 일상 곳곳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진행하는 회사 무료 특강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대학생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일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시인'으로 유명한 하상욱씨와 그룹 '메이트'의 메인보컬 정준일씨가 출연할 예정이다.

하상욱 씨는 디자이너에서 SNS시인으로, 최근에는 가수로 데뷔하는 등 자신의 경험담을 주제로 강연하고 SNS와 현장 참가자들로부터 접수된 고민들을 직접 상담해 주는 시간도 갖는다.

뒤이어 2부에서는 3년 6개월 만에 새로운 정규 앨범 '엔드 오브 더 월드(End Of The World)'로 컴백한 그룹 메이트의 메인보컬 정준일이 출연, 1시간여의 미니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이 행사는 대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LIG손해보험 페이스북(www.facebook.com/ligstory) 또는 전화접수(02-6370-8568)를 통해 가능하다.

/김형석기자 khs@

"연말연시 환전고객 유치전 치열"

은행들 해외여행 성수기 맞아 경품 공세

주요 은행들이 해외여행 수요가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다양한 환전 이벤트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겨울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최대 80%까지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우리두리 해외로 환전 이벤트'를 내년 2월 27일까지 실시한다.

행사 기간 동안 해외여행, 유학과 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미화 500 달러 이상의 금액을 환전할 경우 주요 통화(미 달러화, 유로화, 엔화)에 대해서는 50%, 기타 통화에 대해서는 30%를 우대 받을 수 있다. 두 명이 동시에 영업점을 방문해 각각 미화 500달러 이상을 환전하면 추가 30% 우대 혜택을 준다.

또 미화 2000 달러 이상 환전하는 경우에는 동반 인원이 없어도 80%까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환전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신라면세점 할인쿠폰, 공항철도 할인권도 제공된다.

NH농협은행도 겨울철 환전 성수기를 맞아 'NH농협은행 환송·신년회 조대장' 이벤트를 내년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하나금융지주 계열은행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내년 2월 말까지 '해피 윈터 환전 페스티벌'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우선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환전금액에 따라 주요통화(미 달러화, 유로화, 엔화) 최대 70%, 기타통화 40~50%의 우대환율을 제공한다. 또 하나은행은 해외송금 고객에게도 동일한 우대환율을 제공하는 송금 페스티벌'을 동시에 실시한다. 외환은행은 모바일 환전 고객을 위한 추가 경품 행사를 마련했다.

/김민지기자 minji@

'환율 전쟁'…증시 최대 복병

그리스발 대외 리스크로 엔화 강세 유지

연말을 앞두고 글로벌 주식시장의 환율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달러 강세와 유가 급락 여파에 주요국 환율이 요동치면서 주식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환율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JP모건글로벌FX변동성지수는 전날 9.53(종가 기준)을 나타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자 약 1년4개월 만의 최고치다. 직전 고점인 지난해 8월 30일의 10.40 돌파도 눈 앞에 뒀다.

내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통화정책을 내세워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공격적인 엔저 정책을 내세운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일본 증시는 일찌감치 상승 탄력을 받았다.

특히 최근 엔화 가치가 달러당 120엔대까지 진입하면서 올 들어 닛케이평균주가와 토픽스지수는 각각 9.34%, 10.27%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요 며칠새 중국도 환율전쟁에 가세했다.

중국 금융당국이 증시 과열에 따른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단기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담보물의 신용등급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위안화 가치가 하락했고 중국 증시에까지 여파를 미쳤다.

지난 8일 3000선을 돌파하며 호조를 보이던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 5% 넘게 급락하면서 5년래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박석중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수출 모멘텀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을 이유로 위안화 약세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며 "중국 경기를 고려할 때 당분간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각국의 정책과 대내 리스크가 연달아 불거지면서 주요국 환율이 갈지자 행보를 그리고 있는데 있다. 최근 국제 유가의 급락도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그리스 구제금융 종료가 무산됐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중국과 그리스발 우려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커졌고 엔저 현상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날 엔·달러 환율이 급락(엔화 강세)했고, 여기에 동조해 원·달러 환율도 하락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당분간 환율 변동 불안감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옥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달러가 하락세를 잇는 가운데 중국과 그리스발 대외 리스크로 인해 엔화가 강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대일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기회복으로 달러화 강세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중국 위안화 강세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환율 불안은 쉬사리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만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유럽의 추가 경기부양책 등이 가시화되면 내년에도 글로벌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올해 못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대신증권 ELB 1종·ELS 7종 출시 대신증권은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7종, 원금보장형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1종 등 총 8종의 상품을 오는 12일까지 판매한다. 이들 상품은 KOSPI200, HSCEI, NIKKEI225, EURO 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최소 청약단위는 100만원이며 발행일은 오는 15일이다. 총 모집규모는 354억7000만원이다. /대신증권 제공

인도네시아 증권 유관기관 한국어 교육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증권 유관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현지 중앙예탁기관(KSEI), 증권거래소(IDX), 증권청산기관(KPEI) 등의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9월 업무협약을 맺어 내년 9월까지 10개월간 교육한다. /예탁결제원 제공

은행권 임단협… 정년·임금피크제 쟁점

시중은행 노사가 임금 단체협약 협상(임단협)에 돌입했다.

이번 임단협은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개정된 정년연장법 시행을 앞두고 정년연장과 이와 결부된 임금피크제 논의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임단협 교섭에 들어가거나 조만간 교섭을 시작한다.

국민은행은 지난 3일 노조와 윤종규 KB금융 회장 겸 국민은행장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8일 본격적인 실무협상에 들어갔다.

하나은행 노사는 지난 9일 상견례를 가졌다. 신한은행 노사도 이날 상견례를 하고 실무 협상에 들어간다. 씨티은행 노사는 교섭 공고기간을 거쳐 이달 말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리은행 노사는 지난 2일부터 재협상에 돌입했지만 2013년 임단협조차 아직 타결이 안 된 상황이다. 외환은행 노사는 하나은행과의 통합 이슈와 맞물리면서 임단협 교섭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임금인상률과 관련, 국민은행 노조가 4.4% 인상안을 요구했고 하나은행 노조는 5.5%의 인상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신한은행 노조는 6.1%의 임금 인상을 요구할 계획이며 씨티은행 노조는 4~6%대의 인상안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타결된 은행권 산별 협상의 임금인상률 기준인 2.0% 수준을 크게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의 수익성이 악화한 데다 은행 직원 급여 수준이 높다는 사회 인식이 있어 임금인상률은 가이드라인을 크게 벗어나는 선에서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보배기자 bb@

제일모직 공모 첫날 6조 몰려

청약경쟁률 38.8대1

제일모직의 일반청약 첫날 6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몰렸다.

10일 대표주관사인 KDB대우증권에 따르면 다음날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제일모직의 일반공모 청약 경쟁률은 이날 16시 청약 결과 38.80대 1을 기록했다.

첫날 경쟁률 38.8대 1은 지난 2010년 삼성생명이 기록한 6.51대 1(증거금 3조1820억원)은 물론 지난달 5~6일 공모청약을 진행한 삼성에스디에스의 경쟁률 20.31대 1(증거금 2조3534억원)을 크게 앞서는 기록이다.

전체 청약주식 수는 2억2319만8050주였으며 청약증거금은 총 6조2193억9126만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별 경쟁률은 신한금융투자가 가장 높았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쟁률은 83.6대 1로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삼성증권이 7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하나대투증권 48.6대 1, KDB대우증권 27.7대 1, KB투자증권 22.0대 1, 우리투자증권 21.3대 1 순이었다.

앞서 각 증권사에 배당된 물량은 KDB대우증권 217만9900주, 우리투자증권 176만2000주, 삼성증권 139만1000주, 신한금융투자·하나대투증권·KB투자증권이 각 13만9000주였다.

제일모직은 오는 18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공모가 5만3000원 기준 시가총액은 7조2000억원에 달한다.

/김현정기자

"한장사면 한장은 무료"

KB카드, 뮤지컬 '그날들' 이벤트

KB국민카드는 10일 뮤지컬을 알뜰하게 즐길 수 있는 '원 플러스 원(1+1) 문화공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 대학로 뮤지컬센터 대극장에서 내년 1월 11일 오후 6시에 펼쳐지는 총 550여 석 규모의 뮤지컬 '그날들' 공연을 대상으로 한다.

뮤지컬 '그날들'은 청와대 경호실을 배경으로 가수 故 김광석의 노래들로 꾸며진 창작 뮤지컬이다. 이날 공연에는 배우 유준상, 김승대, 신다은 등이 출연한다.

공연 티켓은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KB국민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되며, KB국민카드로 예매 시 예약 좌석과 동일한 좌석 등급으로 동반자 1인 티켓이 무료 제공된다.

티켓은 1인 최대 2매까지 구입 가능하며 VIP석은 11만원, R석은 8만8000원, S석은 6만6000원이다.

한편 KB국민카드는 지난 5월 뮤지컬 '레베카'를 시작으로 '뮤지컬 보이첵', '뮤지컬 머리 엄두마녀트' 등 총 3회에 걸쳐 문화공연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윤창수 KB국민카드 홍보실 팀장은 "고객들이 대작 뮤지컬을 알뜰하게 즐길 수 있도록 내년에도 변함없이 다양한 문화공연 이벤트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란기자 alwo0205@

"IPTV,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찾아야"

가입자 1000만 돌파 기념 컨퍼런스

전국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하여 케이블TV 사업자를 위협하고 있는 IPTV가 출범 6주년을 맞았다. 2012년 4월 출범 3년 4개월만에 500만 가입자를 유치한 IPTV는 이후 500만 가입 유치까지 걸린 시간을 1년 단축했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시청가구수가 1800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IPTV가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에 비해 경쟁에서 다소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0일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가 개최한 'IPTV 1000만 출범 6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는 'IPTV 가입자 1000만 시대, 그 의미와 과제 그리고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IPTV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콘텐츠 확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이 다뤄졌다.

발제를 맡은 이상우 연세대 교수는 "소비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기존 또는 신규 소비자들의 잠재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콘텐츠 발굴과 서비스 다양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자체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강조했다. IPTV 출범을 준비하던 당시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늘어나는 만큼 다양한 콘텐츠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출범 6주년을 맞은 현재 IPTV만의 독자적 콘텐츠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원식 홍익대 교수는 "플랫폼이 늘어나면 여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소비자들의 효용을 늘리고 이것이 다시 PP로 선순환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가 10일 IPTV 1000만 출범 6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김원식 홍익대 교수, 문석민 서울대 교수, 강대호 연세대 교수, 이상우 연세대 교수, 이영주 서울과기대 교수, 이영철 협성대 교수(왼쪽부터)가 'IPTV 가입자 1000만 시대, 그 의미와 과제 그리고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최근 방송사업자 간 경쟁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이를 위한 규제 전환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문석민 서울대 교수는 "애플, 구글, 유튜브 등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플랫폼으로 부상하는 사업자들이 국내 소비자들의 주된 미디어 플랫폼이 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사업자들 간의 이해관계에 갇혀 점유율을 다투는 식의 경쟁과 규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역설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1000만이라는 거대한 가입자의 TV 시청 행태에 관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모델이 제시됐다. IPTV 사업자는 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양방향성의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셈이다.

'티커머스'는 대안으로 제시된 이영철 협성대 교수는 "현재도 티커머스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기존 TV홈쇼핑의 아류 같은 형태일 뿐"이라며 "셋톱박스 등을 통해 수집·축적한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쇼핑과 결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유료방송시장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기자 hbuna0404@metroseoul.co.kr

"KISA, 정보보호 글로벌 리더로!"

백기승 원장, 4대 전략 목표·12개 과제 발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터넷과 정보보호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

백기승 KISA 원장은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9월 원장 취임한 후 3달이 지났다. 최근 KISA의 경영 방침과 전략을 세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백 원장은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하는 인터넷·정보보호 진흥기관'이라는 비전과 함께 4대 전략목표, 12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새 비전은 우리나라가 인터넷과 정보보호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터넷을 통한 국가 미래가치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관의 위상을 확립한다는 의미에서 설정됐다.

이와 함께 ▲산업진흥 ▲정보보호 ▲미래선도 ▲혁신경영이라는 큰 틀의 4대 전략목표도 세웠다.

우선 KISA는 국내 정보보호산업 시장규모를 지난해 7조원에서 2017년 14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내 최고 권위의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인터넷 분야에 특화된 트렌드북을 정기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지역별 정보보호 지원센터 및 스마트모바일앱개발지원센터를 각 10개 구축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정보보호 분야에서는 범국가자원의 침해사고 종합대응체계를 2017년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KISA는 악성코드가 PC에 들어오면 이를 탐지하고 ISP로 하여금 전용 백신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모바일에는 이런 체계가 없었다. 최근 스마트폰 대중화로 모바일 보안 체계도 중요시 되면서 내년엔 모바일 응급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에도 들어갔다. 인터넷 침해대응센터 이중화를 위한 예산도 10억원 확보했다.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영방침과 전략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미래선도 분야에서는 인터넷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KISA는 현재 중국, 벨기에, 프랑스, 미국, 트윈디 등 5개 전략거점을 갖고 있지만 이를 2017년까지 중남미, 동남아, 중동으로 확대에 나선다.

백 원장은 "6년 이상 KISA 조직이 운영되면서 중간 중간에 빈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부족하거나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재영기자 ljy0403@

쪽방 방문하는 삼성사회봉사단 박근희 삼성사회봉사단 부회장(왼쪽),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 등이 10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일대 쪽방을 위문하고 있다. 삼성사회봉사단 박 부회장 등 24명은 이날 서울 용산, 남대문, 종로·영등포 등 6군데 쪽방촌을 방문해 생필품과 선물을 전하고 무더 불편한 이웃을 돌봤다. /연합뉴스

한국·아세안 민간 경제협력 스타트

협의체 구성 정보·프로그램 공유하기로

우리나라 기업과 동남아시아 기업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진다.

한국과 아세안 간에 최초의 민간 경제협력 채널이 출범했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기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10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상공회의소 부회장과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ASEAN Business Council (한-아세안 기업인 협의체)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한-아세안 경제인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앞서 이날 열린 경제인 행사에는 한국 경제인 대표로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아세안 측에서는 오뎃 사우바나봉 라오스상의 부회장, 다또 하리쓰 압둘라 한-말레이시아 경협위원회 위원장, 따 탄 미얀마상의 부회장, 부 띠엔 록 베트남상의 회장, 로렌스 리우 싱가포르 경제인연합회 이사, 이라와티 헤르마완 인도네시아 상의 사무차장 등이 각국의 경제단체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날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각국 경제단체 대표들은 한국과 아세안 간 최초의 민간경제협력채널 기구인 '한-아세안 기업인 협의체' 구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 지역 경제단체들은 '한-아세안 기업인 협의체'를 민간부문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채널로 삼을 것을 약속했다. 또한 시장정보 교환, 사절단 파견, 공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적극 노력하고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와 상호 진출을 위한 지원을 합의했다.

/박성훈기자 zen@

우리의 혁명은 숲에서 시작된다

ROBIN HOOD

DAS MUSICAL

로빈훗

2015.1.23-3.29 · 디큐브아트센터

유준상 서영주 이건명 엄기준 조순창 박진우 박성환 규현 양요섭 서지영 김아선 여진 다나

추위 임박… 공기 가전시장 경쟁 '후끈'

국내외 업체 다양한 제품 출시

외산 저가 제품 성능 우려 제기

국내 공기청정기와 에어워셔 시장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본격적인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실내 공기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가격 경쟁력을 갖춘 외국계 브랜드까지 합류해 시장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국내 공기가전 제품들이 겨울 성수기를 맞아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는 공기청정기 판매가 작년보다 150%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3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한 위닉스는 공기청정기와 에어워셔의 인기로 4분기 흑자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대유위니아와 삼성, LG전자, 쿠쿠전자, 위닉스 등 국내 업체들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기가전 시장에 최근 중국과 스웨덴 등에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대유위니아, 위닉스, LG전자 등은 가격과 성능을 갖춘 에어워셔를 주력 제품으로 내세웠다. 이들 업체들은 공기청정기협회의 품질 인증 마크 'CA(클린 에어)'를 획득하며 공기 청정 기능도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웠다. CA 마크는 미세먼지 집진효율 탈취효율 소음 등을 한국공기청정협회가 만든 단체 표준 규격에 따라 인증시험을 통과한 제품에 부여된다.

삼성전자는 CA HH마크를 획득한 삼성 자연가습청정기로 코웨이는 초미세 자연가습시스템과 4단계 정바이러스 공기청정시스템이 탑재된 스스로살균 가습공기청정기(APMS-1014D)를 출시했다.

LG전자 공기청정기

대유위니아 에어워셔

스웨덴 공기청정기 블루에어는 공기청정기 라인업인 'E 시리즈'로 국내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12분만에 공기를 깨끗이 정화한다 하여 '12분 공기청정기'라 불린다. 사용범위에 따라 블루에어 270E(22제곱미터), 블루에어 450E(34제곱미터), 블루에어 650E(65제곱미터) 등 세 모델로 나뉜다. 그러나 해당 제품의 가격은 70만~100만원대로 비교적 높다.

반면 중국 샤오미는 저가형 제품으로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샤오미는 지난 9월 신제품 공기청정기 '미 에어(Mi Air)'를 공개하고 오는 16일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제품 미 에어는 기존 중국 공기청정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스마트 기능이 탑재된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4개의 독립적인 관으로 이뤄진 듀얼팬이 적용됐다. 미 에어는 A4 정도의 작은 공간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이며 가격은 899 위안(한화 약 16만원)으로 저렴하다.

그러나 공기청정 업계에서는 샤오미 제품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량생산 방식을 갖췄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헤파필터를 적용해 10만원대 제품을 생산하는건 쉽지 않다"며 "샤오미가 공기청정 기능을 갖춘 저가형 제품으로 선의의 경쟁을 불러올 수 있지만 만약 제품 성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공기청정 업체들은 샤오미가 어떤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했는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영선기자 yoo@metroseoul.co.kr

다음카카오 미운털 박혔나

대표, 경찰 소환 당하자 업계 '당혹'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 대적하는 행보가 도화선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 기관과 포털 업계에 따르면 이석우 대표는 10일 밤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앞서 이 대표는 카카오그룹 비공개 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사전에 발견하는 기술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지난 8월부터 실무자 조사를 3차례 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중순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음란물 유통 관련 포털 업계에 대한 수사 당국의 대응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검찰은 지난 2000년과 2001년에도 다음과 옥션을 조사했으며 2005년에는 다음, 네이버, 야후코리아 등 대형 포털들을 음란물 혐의로 기소했다. 2008년에는 네이버를 압수수색까지 했다.

하지만 이번 이석우 대표의 경찰 소환 조사는 다음카카오가 검찰에 박힌 미운털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13일 이 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혀 현행법 저촉 파문을 일으켰다. 사생활 안전을 이유로 가입자 이탈이 속출하자 자시 서버에 저장된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더이상 검찰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든 것이다.

아울러 다음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통해 검찰의 서버 수색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비밀 채팅' 기능을 선보였다. 이 기능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개인 단말기에 저장하는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적용했다.

한편 대표 소환 조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다음카카오 측은 "이석우 대표는 회사의 대표로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말을 아꼈다.

/장윤희기자 unique@

제주시 영평동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위치한 다음카카오 본사 모습 /연합뉴스

휴대폰 소액결제하면 배달음식 할인! KT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배달음식 전문 앱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에서 구매하는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제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KT 제공

파일 링크 함부로 클릭하면 큰일나요

드롭박스 악용 악성코드 활개

세계적인 파일공유서비스인 드롭박스를 악용한 악성코드가 활개 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랩은 이같은 사례가 주준이 발견돼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안랩에 따르면 악성코드 유포자는 먼저 자신의 드롭박스에 악성 실행파일을 올린 후 개인 블로그에 '인기 게임 혹은 프로그램 유틸리티'를 사칭해 해당 파일의 링크 URL을 게시했다. 의심 없이 해당 악성파일을 내려받아 실행한 사용자의 PC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URL만으로 올려놓은 프로그램·파일을 불특정 다수와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드롭박스의 파일링크 기능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악성코드 공격자는 감염된 PC에서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추가 악성코드 다운로드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안랩 측은 설명했다.

박태환 안랩 ASEC대응팀 팀장은 "공격자가 악성파일을 바꾸기만 하면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도 감염될 수 있어 기본보안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불법 파일을 내려받지 말고 운영체제, 인터넷 브라우저, 오피스 SW 등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국현기자 lonlee@

아파트-오피스텔, 경계 허무니 '윈윈'

서로의 장점만 모아 틈새시장 공략
투자가치에 실용성 더해져 반응 좋아

최근 부동산시장에 '크로스 오버' 바람이 불고 있다.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호텔 같은 아파트 등 상품간 경계를 허물고 각각의 장점을 결합함으로써 정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평면을 도입한 오피스텔이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투자금·세금 등의 문제로 전용면적 33㎡(10평) 이하 원룸형의 소형 오피스텔이 주를 이뤘으나 공간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변신을 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방 드레스룸, 주방 팬트리 등 아파트에서나 볼 법한 수납공간을 도입하는가 하면, 2~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투룸·쓰리룸 평면도 속속 선보이고 있나. 남향 배치에 3면 발코니, 3-bay 설계를 적용한 오피스텔도 등장했다.

삼성물산이 서울 용산에 짓고 있는 '래미안 용산SI'는 전용면적 42~84㎡로만 구성해 주거기능을 높였다. 대부분 침실과 거실·주방의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일부를 투룸형으로 설계했다. 또 세탁실, 창고와 같은 수납공간까지 제공했다.

경기 광명역세권개발지구에 GS건설이 공급한 '광명역 파크자이 오피스텔' 역시 자부심된 1.5룸을 도입해 2인 가구가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또 천장고를 최대 30cm까지 높여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한화건설이 위례신도시 업무지구 24블록에서 분양할 '위례 오벨리스크'는 최대 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다양한 평면을 마련했다. 특히 전용면적 73㎡와 84㎡ 일부는 아파트와 같은 3-bay 3면 개방형 설계를 적용했다. 만영 소형주택이 없는 위례에서 아파트 대체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한화건설이 위례 오벨리스크 오피스텔에 도입한 아파트형 평면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주를 이루면서도 정작 평면은 주거용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수익형 상품인 오피스텔에 아파트의 실용성을 더함으로써 주거 대체상품으로 보다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아파트를 닮은 호텔도 나타났다. 부산 해운대에서 선보인 '더에이치스위트'는 숙박시설이지만 전용면적 81~89㎡에 방 3개, 취사가 가능한 주방을 배치했다. 호텔로 활용하며 임대수익을 올리거나 계약자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할 수 있다.

반대로 호텔 같은 아파트도 있다. 두산중공업이 서울 서울숲 인근에 공급한 '트리마제'는 각종 및 종합 상부품을 대행해주는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를 비롯해 조식 뷔페, 세탁대행, 청소, 발렛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로스 오버 상품이 각광받고 있다"며 "상품별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한국감정원 어려운 이웃에 연탄 전달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지난 9일 대구지역 에너지 소외계층을 찾아 연탄을 전달했다. /한국감정원 제공

래미안, 브랜드 가치 15년간 1위

국내 아파트 브랜드 가운데 '래미안'이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 래미안은 올해로 15년째 아파트 가치 1위를 기록했다.

브랜드 가치 평가 전문회사 브랜드스탁은 2014년 주거(아파트) 부문의 브랜드 가치평가지수(BSTI·Brand Stock Top Index)를 분석한 결과, 삼성물산의 '래미안'이 829.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대우건설 '푸르지오'가 816.6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대림산업 'e편한세상'(806.3점) ▲GS건설 '자이'(796.3점) ▲롯데건설 '롯데캐슬'(788.9점) 등이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래미안은 브랜드스탁이 BSTI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15년 연속 아파트 브랜드 가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선두권 브랜드들과의 격차는 점차 좁혀지는 양상이다.

2012년 래미안의 BSTI는 875.1점으로 당시 2위였던 롯데캐슬(834.1점)보다 41점 높았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위 롯데캐슬과의 격차가 16.6점으로 줄었고, 올해 2위인 푸르지오와는 13.1점 차이로 격차가 더 좁혀졌다.

지난해 798.5점으로 5위에 머물던 푸르지오는 올해 BSTI가 상위 15대 브랜드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하며 2위로 뛰어올랐다. 이에 반해 지난해 821.3점으로 2위였던 롯데캐슬은 올해 32.4점 하락해 5위로 떨어졌다.

브랜드스탁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브랜드들의 BSTI 점수가 수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선옥기자

올 서울아파트 분양가 18% 올랐다

올 한해 2000년대 들어 최대 분양 물량이 쏟아졌다. 그만큼 1순위 청약 마감률도 증가했고, 분양가도 상승했다.

10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 들어 전국적으로 424개 단지 23만7697가구(임대 제외)의 아파트가 분양됐다. 지난해(18만5968가구)보다 27.8% 증가한 것으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8만4573가구 ▲지방 5대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6만424가구 ▲세종시 등 기타지방 9만2700가구다.

분양가는 평균 3.3㎡당 1153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97만원보다 5.1% 오른 금액으로, 특히 서울이 1839만원에서 2164만원으로 17.7% 상승했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기타지방은 각각 8.8%(1493만→1625만원), 15.8%(769만→890만원), 14.4%(660만→755만원) 뛰었다.

전국적으로 2083개의 주택형이 공급된 가운데 1순위에서 절반에 가까운 958개가 마감됐다. 지방광역시에서 488개 주택형 중 63.3%에 해당하는 308개가 1순위 마감됐고, 기타지방 41.1%(750개 중 308개), 수도권 40.4%(845개 중 341개) 순으로 파악됐다.

1순위 마감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세종시로 88.8%를 기록했다. 89개 주택형 가운데 79개가 1순위에서 청약을 마치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수도권에서 최고 1순위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는 지난 10월 분양된 위례신도시 위례자이 171.24㎡(이하 계약면적)로 369.5대 1을 기록했다. 광역시 등 지방에서는 이달 초 공급된 부산 대신푸르지오 99㎡가 377.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청약자수 기준으로는 부산 래미안장전으로 14만63명이 몰렸고, 이어 부산 대연롯데캐슬레전드 12만7129명, 위례신도시 위례자이 6만2670명으로 집계됐다.

권일 닥터아파트 분양권거래소장은 "내년 3월 청약제도 개편을 앞둔 데다 전매제한 완화로 분양시장에 가수요까지 겹치면서 입지가 뛰어난 인기 단지로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며 "건설사들도 분양시장 호조를 틈타 그동안 미뤄왔던 분양물량을 쏟아냈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공공건설 현장 '갑질' 그만" 10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갑을 상생발전을 위한 을의 한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책자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술 마다 궁합 맞는 '잔'이 있다

술자리를 돋보이게…우아하게…

패트론 전용잔, 버니니 전용잔, 가쿠빈 가쿠하이볼 전용잔, 아그와 아그와 밤 전용잔, 레페 전용잔 (왼쪽부터)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행사 등으로 술자리가 많아지는 때이다. 과거 '부어라 마셔라'가 대세였다면 최근 주류 문화는 가볍게 칵테일 등을 즐기면서 담소를 나누는 고품격 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석상할 수 있는 술자리를 돋보이게 하는 소품이 바로 '전용잔'이다.

와인 잔의 경우, 술이 공기와 닿는 면적을 계산해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잔 모양을 갖게 됐다. 코냑은 따뜻하게 마셔야 향이 진해지기 때문에 높이가 낮은 잔을 사용한다. 끝 맛이 싹 한 입에 털어 마시는 소주는 원샷 사이즈로 만들어졌다. 이 밖에 잔의 형태만 보아도 그 주종의 특색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전용 잔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재미를 더해준다.

와인이나 위스키의 전용잔들은 생산방법과 생산지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지는 술로 같은 브랜드라도 연산에 따라 ▲생산된 지역 ▲제조 방식 ▲숙성통에 따라 색다른 풍미를 잘 나타내는 전용잔이 필요하다.

주류수입 전문기업 인덤지의 경우 수제 데킬라 '패트론'을 국내 공식 출시하면서 전용잔인 스니프터(snifter)를 선보였다. 데킬라는 한 번에 들이킬 수 있는 샷 잔에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이 전용잔은 주로 싱글몰트 위스키에서 사용하는 튤립 모양으로 제작됐다. 잔 입구가 모목해 향을 모아주기 때문에 제품이 가지고 있는 향을 오랫동안 음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스파클링 와인 '버니니'의 경우 맛뿐만 아니라 병 자체 디자인을 선호하는 이들이 많다. 기존 와인보다 작은 275㎖ 사이즈로 병째 들고 마시는 이들도 많지만, 일반 와인 잔보다 높이 좁고 길쭉한 모양의 버니니 전용잔을 통해 탄산이 장시간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다.

산토리의 위스키 브랜드 '가쿠빈(Kakubin)'의 전용잔은 탄산수, 얼음과 함께 섞어 마시는 칵테일 가쿠하이볼을 간편하게 제조할 수 있게 한다. 가쿠빈 병 디자인처럼 거북이 등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오뚜기 잔', '모래시계 잔'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아그와의 전용잔은 아그와 밤(Agwa Bomb)을 먹을 때 그 진가가 발휘된다. 이 잔을 활용하는 방법은 볼록한 아랫부분에 에너지 드링크를 채운 후 그 위에 아그와를 천천히 따라주는 것이다. 이 때 아그와 전용잔 허리선 부분 살짝 위까지 에너지 드링크를 담아야 확실히 층이 나뉜 아그와 밤을 즐길 수 있다.

맥주는 온도에 민감해 열전도율이 낮고 손잡이가 있는 유리잔에 마시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벨기에 맥주 '레페(Leffe)'의 전용잔은 잔 입구가 넓고 손잡이용 자루가 붙은 고블릿 형태로 제작됐다. 손의 열기가 자루를 통해 잔의 온도를 높이면서 향이 더욱 퍼지산된다. 다른 맥주와 달리 미지근해야 맛있는 레페의 특징을 살렸다.

온라인 화장품…PB·공동기획 '붐'

뷰티 카테고리 두자릿 수 성장

온라인 유통 업계가 성장성이 좋은 뷰티 카테고리를 키우고 있다. 실제 G마켓과 옥션의 경우 올해 뷰티 제품 판매가 두자릿 수 증가세를 보였고, 소셜커머스 티몬도 50% 이상 뷰티 카테고리가 성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숍 상품을 중심으로 화장품 판매가 늘고 있다"며 "쿠폰을 붙이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호응이 좋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는 전문 업체와 손잡고 공동 기획을 하거나 PB 상품을 개발하는 등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함께해 판로를 돕는 동시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오픈마켓 옥션은 화장품 OEM·ODM 기업 에이본레와 공동 기획으로 에이범을 론칭했다. 옥션은 모델 선정과 고객 트렌드 분석 등 기획에 참여했다.

공동 기획 상품은 고객층을 염두에 두고 기획에 나서기 때문에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에이범도 미샤·에뛰드 하우스 등 브랜드숍 상품을 주로 찾는 10~20대를 겨냥해 만들어진 브랜드다.

'힐링 코스메틱'을 콘셉트로 제주 친환경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백년초 새순 추출물', 피부 항산화 특허성분 '에이-옥스 콤플렉스(A-OX COMPLEX)'가 제품에 함유돼 있다.

옥션은 뷰티 카테고리 내에 별도 코너를 만들고 스킨케어, 메이크업 등 9종의 상품을 판매 중이다.

옥션 관계자는 "올해 화장품 카테고리 매출 신장률이 지난해 보다 15% 신장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과 공동 기획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티몬도 지난 10월 마스크팩 제조 업체 제닉과 함께 자체 브랜드 티젠을 출시했다. 주름관리·미백·보공 등 3종으로 구성된 마스크팩을 티몬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티젠을 마스크팩 대표 브랜드로 키우는 한편 향후 자사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동 기획에 나서기 때문에 소싱 해오는 상품보다는 마진이 좋은 편이다"며 "상품 판매를 넘어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중소기업 판매가 많은데 그들의 상품을 소개하고 별도의 마케팅 비용 없이 소비자들과 접점을 구축할 수있도록 돕는데 노력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강강술래 '크리스마스 연말 마케팅' 호평

단체예약시 한우육회·현수막 서비스 제공

인기메뉴 4종 구성 송년세트 40%대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연말을 맞아 밀려드는 예약전화와 단체손님으로 송년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강강술래는 16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연회장을 비롯해 15명 이상의 소룸 단체룸 등 각 매장별로 다양한 공간을 마련, 모임 성격에 맞춰 품격 있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자연과 어우러진 매장 내에서 미니 라이브공연과 산책을 즐기는가 하면 벽과 파티션에 향수를 자극하는 시골의 정겨운 풍경이나 아름다운 산수를 그린 수묵화를 선보이는 등 힐링 송년회를 지을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2월 말까지 전 매장에서는 8인 이상 사전예약 때 한우육회를 비어블 단 하나씩 서비스로 제공하며, 20인 이상 예약할 경우 육회와 함께 현수막을 제작 지원한다. 단, 구이메뉴(정식류·게피아워 제외) 주문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주일 전까지 예약해야 한다.

이달 21일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im.com)과 선물수문(010-92) 을 통해서 집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는 이들을 위한 홈파티용 상품을 파격할인 판매한다.

술래양념(8대)과 한우불고기(500g), 한돈양념구이(500g), 돼지양념구이(500g)으로 구성된 송년세트는 40% 할인된 6만원에 판매한다.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팩스(800㎖ 6팩·18인분)는 3만6800원, 소용량팩스(360㎖ 10팩 20인분) 3만7800원에 각각 40% 할인 판매하며, 영광 법성포에서 자연해풍에 3개월 이상 건조해 만든 국내산 보리굴비세트(20마리)도 약 50% 할인된 6만4000원에 선보인다.

롯데칠성음료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는 지난 9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백사마을을 찾아가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이동진 지원부문장과 김관묵 노조위원장 등 노사 임직원 40명은 차량진입이 힘든 높은 언덕에 위치한 백사마을 8가구에 리어카와 지게 등을 이용해 연탄 총 1600장을 직접 배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비스 버젯 앰배서더 부산 해운대 개관

아코르 앰배서더 코리아(Accor Ambassador Hotel Management Korea)는 부산 해운대에 이비스 버젯 앰배서더 부산 해운대를 10일 공식 개관했다고 밝혔다.

이 호텔은 부산 지역에 처음 들어선 이비스 버젯 계열의 호텔로 지난 10월 서울 동대문 개관에 이은 국내에선 두 번째로 선보이는 곳이다.

호텔은 해운대와 부산 아쿠아리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181객실을 갖췄다. 이비스 버젯의 '단순성·현대성·웰빙'이라는 브랜드 콘셉트에 따라 실용적이고 현대적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오션뷰 객실에서는 해운대 바다 조망과 도심 야경을 만끽할 수 있다.

류준형 이비스 버젯 앰배서더 부산 해운대 총지배인은 "편안한 객실,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워 최고의 추억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편안한 잠자리' 명품 만들기 144년

시몬스, 100% 자체 생산 침대 전문기업의 자부심 특허 기술 '포켓스프링'으로 이상적인 숙면 실현

오직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140년이 넘는 시간을 묵묵히 걸어 온 기업이 있다.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온 프리미엄 토털 리빙 브랜드 시몬스다.

시몬스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제품 라인업은 설립 이래 144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 온 품질에 대한 고집에서 비롯된다.

한국 시몬스 역시 '기본에 충실한 명품'을 만든다는 철학으로 모든 매트리스를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이 아닌 100% 자체 생산 시스템으로 생산 관리하고 있다. 특히 연구 개발에서 소재 선정, 제품 공정, 배송에 이르기까지 한 치의 오차 없이 최상의 퀄리티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는 매트리스의 작은 실밥 하나조차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직접 관리하려는 시몬스의 '품질완벽주의' 철학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한국소비자웰빙지수 10년 연속 침대부문 1위,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6년 연속(역대 7회) 1위 침대부문 1위 선정 등 높은 고객만족도와 제품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제품

한국 시몬스는 국내 자체 생산 시설을 갖추고 모든 제품을 이곳에서 만든다. 한국 시장만이 갖는 특성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라 최상의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서다.

이를 들어 한국은 사계절의 온도 습도차가 커 매트리스 폼이나 쿠션감이 달라지지 않도록 내장재 소재 선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한국 시몬스에서는 내장재 폼을 영하 20℃~130℃의 극한 환경에서 시험, 변형이 없는 지를 꼼꼼하게 검사한다.

또 대부분이 폐쇄된 아파트 생활을 하는 것을 고려해 매트리스 제조 과정에서 유해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인체에 무해한 소재만을 엄선해 '친환경 매트리스 인증 마크'를 획득하기도 했다. 모든 매트리스 원단에 항균 기능도 추가했다.

한국 시몬스는 국가공인기준보다 더 높은 자체 품질기준을 통해 모든 매트리스를 테스트한다.

대표적인 것이 '내구성 테스트'다. 매트리스 사용 기간과 평균 뒤척임 횟수까지 계산해 매트리스 표면에 120kg짜리 팔각형 롤러로 10만번 이상을 밀고 당긴다.

특히 시몬스는 국내 침대업계 최초로 15년간 포켓스프링을 무상 보증을 선언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철저한 품질 검증 과정에 있다. 나아가 포장재까지도 고강도의 인장테스트를 실시, 배송 단계까지 소비자에게 100% 품질이 보장된 제품만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게 시몬스 측의 설명이다.

◆고객 취향에 맞게 라인업 확대

시몬스 고유의 특허 기술인 포켓스프링의 품질과 공정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하다.

스프링 하나 하나를 특수 포켓 커버로 감싸 개별적인 지지력을 실현하는 포켓스프링은 1925년 특허를 취득한 이래 오늘날까지 다양한 형태와 기능으로 발전해 보다 세밀하고 차별화된 편안함을 제공한다.

여기에 한국 시몬스는 다양한 고객 취향에 꼭 맞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매트리스 라인업을 확대, 제품별로 소재와 기능성을 강화했다.

올 3분기에는 백화점 매장에 신규 매트리스 12종, 대리점 매장에 신규 매트리스 5종을 비롯해 40여 종 이상의 신제품을 차례로 출시했다.

최근에는 한국 시몬스의 품질기준에 맞는 최상급 매트리스 라인인 '뷰티레스트 블랙(Beautyrest Black)'을 직수입해 품질과 기능면에서 엄선된 프리미엄 제품까지 선보이고 있다.

시몬스 관계자는 "침대 본질에 충실한 고품질의 제품을 위주로 라인업을 다양하게 구축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침대를 보다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급하게 잡힌 연말 약속도 "괜찮아"

'스피드 화장' 뷰티 아이템

퇴근 후 친구들과의 급 만남, 학교 선후배들과의 모임 등 갑작스럽게 약속을 잡게되는 연말이다.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에게 무방비 상태의 '민낯'을 보여줄 수는 없는 일. 짧은 시간 안에 '외모 변신'을 시켜줄 스피드 뷰티 아이템이 필요한 시기다.

예상치 못했던 미팅 준비에 도움을 줄 첫 번째 아이템은 생얼 케어에 효과적인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이다.

BRTC의 '비어탈라이저 레이저 에이드 비비크림'은 칙칙한 피부톤을 화사하게 보정해준다. 일명 '비타민 비비크림'이라고 불리는 이 제품은 10가지 비타민 성분을 함유했으며 잡티를 가려 깨끗한 피부를 연출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3중 기능성 멀티 아이템이다.

머리를 감지 않은 날 중요한 약속이 생겼다면 '드라이 샴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드라이 샴푸는 한 번만 뿌려도 기름진 머리를 보송하게 만들어주고 두피 냄새를 잡아준다. 에뛰드하우스의 '오 마이 잣 드라이샴푸'는 피지 흡착·오염물 제거에 효과적인 안티-세범 큐큐 럭스 성분이 들어 있어 두피를 산뜻하게 만들어주고, 동시에 불쾌한 머리 냄새를 없애준다.

마지막 '변신 아이템'은 향수다. 은은한 향을 풍기는 여성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뿐 아니라 자기 관리를 잘하는 여성이라는 인식을 남겨주기도 한다.

베르시제의 '브라이트 크리스탈 펙슐루' 향수는 유자와 석류의 상큼하고 은은한 향으로 시작해 라즈베리의 매혹적인 향, 강렬하고 관능적인 느낌의 머스크 향으로 마무리 된다. /박지원기자

추운 날씨에도 발끝은 '따뜻'

가벼운 '패딩 부츠' 인기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발끝을 따뜻하게 감싸줄 신상 부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올겨울에는 가볍고 푹신한 패딩 부츠가 주를 이룬다.

아웃도어 브랜드 센터폴은 보온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겨울철 방한 부츠 '베스티아'와 '리키안' 등 2종을 출시했다.

베스티아 방한부츠는 내피에는 웰딩렉스 소재를 사용하고, 외피에는 내구성이 우수한 합성피혁과 나일론 소재를 섞어 등산과 트레킹뿐만 아니라 겨울철 스키장이나 캠핑지에서도 다목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고 센터폴은 설명했다.

리키안 부츠는 외피에 천연 소가죽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외관과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한다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르까프는 모델 이바비의 이름을 붙인 패딩부츠 2종을 9월 내놨다.

패딩부츠 '벨로'는 가벼운 눈이나 젖은 지면에서도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옆에 지퍼가 있어 신고 벗기기 편리하며 접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세린'은 가볍고 완충력이 뛰어난 파일론 밑창을 사용해 장시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다. /박지원기자

퇴행성관절염, 운동하면 극복

런지와 스쿼트 등으로 하체 근육 단련 도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퇴행성관절염 환자가 늘고 있다. 그중 다른 부위보다 노화가 일찍 시작되는 무릎은 중·노년층의 대표적인 퇴행성관절염 질환 중 하나다.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무릎 연골이 점점 닳아 없어지면서 통증과 함께 관절 변형이 동반되는 질환이다. 질환이 시작되면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절염의 재발 방지와 관절의 기능 향상을 위해 꾸준한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을 통해 무릎 주변 근육의 근력을 강화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일 수 있고 통증 완화는 물론 관절염의 진행을 지연할 수 있다.

운동으로는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런지와 스쿼트가 있다. 런지는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 대표적인 운동으로 양 발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한쪽 발을 보통 걸음의 1.5배 정도 앞으로 내민 다음 양 무릎이 90도가 되도록 내리면 된다. 앞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고 뒤 무릎은 바닥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스쿼트를 통해서도 복부비만을 방지하고 부족한 근력을 강화할 수 있다. 양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바르게 선 후 허벅지가 무릎과 수평이 될 때까지 천천히 앉는다. 이후 이 자세를 잠시 유지하다 처음 자세로 돌아오는 동작을 반복하면 된다.

이와 함께 과체중은 관절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만인 경우에는 식이조절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조형준 용인분당예스병원 원장은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운동을 한다면 관절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겨울 탈모 '수분관리'가 핵심

건조한 환경 두피 건강에 악영향

추위가 시작되면서 건조함도 함께 찾아왔다. 이런 겨울철 건조한 환경은 두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실 겨울은 탈모가 시작되거나 악화되기 쉬운 계절이다. 건조한 환경은 물론 추운 날씨로 실내나 차 안에 난방기구를 장시간 틀어 놓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두피가 건조해지면 우선 각질과 비듬이 늘어나고 가려움증이 심해진다. 간혹 염증이 발생하는데 이 염증은 탈모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건조한 두피는 수분과 유분이 모두 부족한 상태인데 건조함이 지속되면 수 유분이 모자라 표피세포가 각질화된다. 각질화된 표피세포는 모공을 막고 이것이 반복되면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면서 탈모가 찾아온다.

따라서 겨울에는 각별히 두피의 수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건조한 두피는 쉽게 예민해지는 만큼 자극적인 두피 케어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머리를 감을 때는 건성 두피용 샴푸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정기적인 두피 스케일링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것도 도움이 되며 두피와 모발에 필요한 수분을 빼앗아 가는 헤어 드라이기의 사용도 가급적 삼가야 한다. 이와 함께 난방기구가 있는 실내에 오래 있다면 헤어 에센스나 미스트를 이용해 두피와 모발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규호 모어블 모발이식센터 이규호 대표원장은 "두피 건조는 탈모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건조한 환경에서는 관리가 필요하다. 탈모의 증상이 나타나면 탈모 전문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내복·레깅스가 여성 질환 불러

꽉 끼는 옷차림 통풍 안 돼

사람들의 옷차림이 두툼하게 바뀌고 있는 가운데 많은 여성들은 따뜻하면서도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레깅스와 스키니진, 기능성 내복을 입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옷들은 통풍을 방해해 여성 민감 부위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통 민감 부위에서 냄새나 가려움증, 분비물 증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민감 부위에 이상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된다. 겨울이 되면서 면역력이 약화되고 스트레스 등의 영향을 받아 발생할 수도 있지만 즐겨 입는 패션 아이템들이 통풍을 방해할 때도 이런 증상이 쉽게 나타난다.

여성 민감 부위 건강을 위해서는 우선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신체를 꽉 조여 통풍이 되지 않는 패션 아이템의 착용 빈도를 줄이고 되도록 장시간 착용하지 않도록 한다. 속옷 역시 통풍이 되지 않는 나일론 소재나 레이스 등은 피하고 가급적이면 면으로 된 제품을 이용해야 한다.

스트레스와 피로는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시탕이나 초콜릿 등 당분 함량이 높은 음식은 민감 부위의 감염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평소에 분비물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여성 민감 부위의 청결 관리를 위해 여성 청결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알칼리성 비누 등은 질 내 산도 균형을 해칠 수 있어 사용을 자제하고 한국먼디파마의 '지노베타딘'과 같이 질 내 산성환경을 유지하면서 유익균 회복을 돕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황재용기자

평생 건강한 치아 원한다면?

12-15세가 골든타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치아 관리도 중요해졌다.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평소 치아관리가 중요한데 건강한 영구치를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잘해야 한다. 특히 평생 건강한 치아를 원한다면 12세와 15세가 됐을 때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먼저 12세 무렵은 28개의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시기다. 이 시기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충치(치아우식증)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충치 수는 평균 1.8개다.

따라서 식사 후 반드시 양치질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초콜릿, 빵, 밀가루 음식 등은 치아에 잘 부착돼 충치를 유발하기 쉬우므로 것을 기억해야 한다. 반면 잣이나 땅콩, 고기와 생선류 등은 치아에 이로우며 채소나 과일은 치아면을 씻어주는 자정 작용을 해 충치 예방을 돕는다.

또 가능하면 섬유질 다량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딱딱한 음식을 자주 씹어 잇몸을 단련하고 턱 근육을 튼튼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치에 생기는 충치 등 치아의 손상은 나중에 영구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를 찾아 치아관리를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15세에는 잇몸 질환이 생기기 시작한다. 잇몸 질환이란 잇몸이나 치아뿌리, 잇몸뼈 등에 세균에 감염돼 염증이 생기는 것이 원인으로 장기화되면 치아를 잃게 될 수도 있다.

규칙적인 칫솔질과 함께 치실과 치간 칫솔 등을 활용해 잇몸을 관리해야 하며 치열이 바르지 않을 경우에는 교정을 받아 치열과 골격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도움이 된다.

게다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잇몸 질환에 더 많이 노출된다. 월경 등 호르몬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 무렵 여자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보다 치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강성용 SD인치과 대표원장은 "치아는 스스로 관리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부모의 경우 아이들이 올바른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하며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치아 건강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신의 한 수 라는 평가에 "더욱 더 분발해야죠"
'명랑' 끝까지 간다 참 좋은 시절 맹활약 "감사할 뿐"
"진실된 연기로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배우 될 것"

배우 박보검(21)은 최근 종영한 KBS2 드라마 '내일도 칸타빌레'에서 한단계 성숙된 연기를 보였다.

일본 만화 '노다메 칸타빌레'를 원작으로 방영 전부터 화제가 됐던 '내일도 칸타빌레'는 정서에 맞지 않은 캐릭터 설정과 연출로 클래식 드라마의 가치를 보이지 못하며 평균 시청률 5%대의 고전을 면하지 못했다.

그러나 박보검은 그 가운데에서 '신의 한 수'라는 평가와 함께 주목받았다. 2011년 영화 '블라인드'로 데뷔한 뒤 드라마와 영화에서 조연 조연역으로 출연한 그는 이번 드라마를 통한 호평에 대해 "신의 한 수까지는 아니고 늘 맞게 잘 하는 정도"라며 "작품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말했다.

"가족, 소속사 직원 모두 객관적 평가를 해주세요. 연기 칭찬에 욕심이 큰 작품입니다. 전 역할보다 마지막까지 출연한 건 '원더풀 마마'(2013) 이후 두 번째거든요. '내일도 칸타빌레'는 제가 한 첫 미니시리즈이기도 했고요. 인기가 많았던 원작 같에서는 사람들이 저를 잘 알아보시지 못하더라고요. 조금 서운했을거였어요(웃음)."

박보검이 연기한 이윤후는 줄리아드 음대 출신 첼리스트로 긍정적 매력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섬세한 표정과 동작으로 연주 연기를 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원작에 없던 캐릭터라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감사했어요. 표현할 자유가 있잖아요. 악기연주 지휘 연기 준비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윤후가 언제 등장할 지 몰라 조금 늦게 시작했죠. 곡을 잘 느끼려는 생각으로 연기했어요. 지휘할 때는 유독 긴장을 많이 했고요. 지휘 배울 때는 어렵고 힘든데 배우면서 얻는 뿌듯함이 있어요. 첼로도 실력이 느는 걸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나 박보검은 읊조리는 듯한 대사 처리로 '국어책 읽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제 스타일대로 표현했는데 듣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제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죠. '참 좋은 시절'(2014)의 경수 사투리도 써야 했어요. 신승환 선배가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중간에 하차했을 지도 몰라요. 이번에도 국어책 읽는 것 같다는 평가가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 100% 만족 시킬 수는 없지만 아쉬움이 남아요. 그런데 그 아쉬움이 곧 다음의 밑거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윤후는 설내일(심은경)에게 순정파이다. 고백은 거절당해도 "친구로 지내자"며 마음을 전하는 당찬 남자기도 하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친구예요. 실제 저라면 이윤후처럼 못 할 거 같아요. 그래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면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표현은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얼은 정말 단호했어요(웃음). 성인이 된 후에는 연애 경험이 없어요. 고등학생 때가 마지막인데 제가 먼저 고백을 하는 편이었죠. 항상 마음 속에 그리는 이상형은 선한 여자. 가치관과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에요."

자상한 남자친구의 매력을 지닌 이윤후 못지않게 실제 박보검도 남친짤(남자친구로 오해할 만한 연애인 사진)로 유명하다. "작년과 올해 초에 알게 됐어요. 호응~(웃음) 저 만한의 남자였나요? 의도하고 셀카를 찍은 적은 없어요. 주변사람들이 저를 잘 찍어줘요.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죠."

그는 올해 드라마 '참 좋은 시절'과 '내일도 칸타빌레', 그리고 영화 '끝까지 간다'와 '명량'에 출연하며 풍성한 한 해를 보냈다.

"작품에 한류됐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죠. 저를 알릴 수 있었고 연기 경험도 많이 쌓고요.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데 감사한 감정이 안 느껴질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박보검은 내년에는 김혜수 김고은과 출연한 영화 '코인로커걸'로 관객을 만난다.

"내년에도 감사할 일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선 '코인로커걸'이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촬영을 마쳤는데 관객에게 어떤 느낌으로 전달될 지 궁금합니다. 지금처럼만 공부하면 언젠가 좋은 작품에 출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실되게 연기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배우가 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효신기자 (...)@metroseoul.co.kr
사진/이완기(이…) 제이듬 디자인/(…)

KBS2 내일도 칸타빌레 첼리스트 **박보검**

가요계에도 '허니버터칩'이 있다?

'컬래버레이션' 노래에 점령 당한 음원차트 듀엣곡 발표는 물론 연말 공연도 함께 진행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허니버터칩 과자를 맥주나 다른 과자와 끼워 파는 마케팅에 성행 중이다. 허니버터칩의 인기가 워낙 높다보니 '1+1' 식으로 다른 상품과 묶어서 내놓아도 잘 팔리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현재 가요계에서도 진행 중이다.

가수 아이유는 올해 '가요계의 허니버터칩'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다른 아티스트의 앨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신인 보이그룹 하이포와 함께 '봄 사랑 벚꽃 말고'를 발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설렘과 사랑 타령 일색인 노래들 가운데 홀로 시큰둥한 기분을 노래한 '봄 사랑 벚꽃 말고'는 새로운 '봄 노래'로 떠올랐다. 이어 아이유는 울랄라세션과 '애타는 마음'으로 호흡을 맞췄으며 SBS 'K팝스타' 출신 신예 윤현상의 '언제쯤이면'도 함께 부르고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다.

'문화대통령' 서태지도 아이유 카드를 뽑아 들었다.

아이유

서태지는 지난 10월 정규 9집 '콰이어트나이트'를 발표하기에 앞서 아이유와 '소격동'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앨범의 선공개곡이었던 '소격동'은 아이유가 부른 버전과 서태지가 부른 버전으로 이뤄졌었다. 서태지가 만든 노래를 그가 아닌 다른 가수가 전부 다 부른 것은 아이유의 '소격동'이 처음이었다.

서태지는 "이 노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여자가수는 아이유 뿐"이라고 극찬했고 그의 예측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소격동'은 공개와 동시에 음원 차트 1위를 점령했다.

아이유가 선후배 가수 가릴 것 없이 지원사격에 나선 동시에 가요계에선 일명 '콜라보'(컬래버레이션) 열풍이 불었다. 컬래버레이션은 현재 가요계에서 성공의 키워드처럼 통하고 있다. 톱 가수와 신인가수의 조합이든 같은 장르의 두 팀이 만난 형태든 컬래버레이션 앨범은 음원 차트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걸그룹 씨스타 소유와 정기고의 '썸'은 노래 자체의 인기를 넘어서 대중문화계에 '썸' 돌풍을 일으켰다. 정기고는 언더신에서는 매우 유명한 보컬리스트였지만 케이팝 신에서는 신인에 가까운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콜라보 바통은 씨스타 멤버 효린이 이어 받았다. 효린은 현재 같은 소속사 가수 주영과 '지워'로 활동 중이다.

윤상과 휘성은 조금 다른 방식을 택했다.

윤상은 남자 가수들과 호흡을 맞춘 앨범 '더 듀엣 파트1'을 11일 발매한다. 컬래버레이션이 주로 남녀 가수의 조합으로 이뤄진 가운데 윤상의 '더 듀엣'은 오로지 남자 가수로만 이뤄진 프로젝트라서 신선하다는 평가다. 윤상은 이번 앨범에서 인피니트의 멤버 성규, 다빈크, 팀 등과 함께 노래했다.

휘성은 'WS 듀엣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휘성은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범키와 '열미쳐리 사랑', 긱스의 '친구로 남아줄게', 알리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을 발표했다. 9일 공개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은 10일 기준 주요 온라인 음원 차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대부분 협업이 '1+1' 형식이었다면 '2+1'의 조합도 있다.

컴백 그룹 다이나믹 듀오는 다비 박정현과 '싱숭생숭(SsSs)'를 발표한 데 이어 오는 20~25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합동콘서트 '그 해 겨울'을 개최한다. 박정현은 다이나믹 듀오에 앞서 성시경, 김범수, YB 등과 '그 해 겨울'을 진행한 바 있다.

플라이투더스카이와 거미는 음원을 따로 발표하진 않으나 오는 23~25일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합동콘서트 'THE 끝장'을 개최한다. 14년 지기로 알려진 플라이투더스카이와 거미는 오랜 시간을 함께해 온 좋은 친구이자 음악 동료다. 세 사람은 이번 공연을 위해 각자의 히트곡 퍼레이드를 비롯해 기존 곡을 재해석 한 무대, 컬래버레이션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준비했다.

씨스타 소유·정기고 '썸' 위)과 플라이투더스카이×거미.

가수에게 컬래버레이션은 새로운 도전이다. 자신의 음악색을 내려놓고 다른 가수와의 협업을 통해 다른 장르에 도전하는 신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선한 조합은 가요계를 풍성하게 만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판에 박힌 복사판 같은 컬래버레이션만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지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감성 뮤지션들의 크리스마스 파티

감성 레이블 파스텔 뮤직의 대표 뮤지션들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연다.

에피톤 프로젝트, 끝은 캐스커, 한희정 등 파스텔 뮤직 소속 뮤지션들은 오는 25일 대림미술관이 주최하고 파스텔뮤직·대림미술관이 주관하는 '2014 크리스마스파티 사랑의 단상'에 출연한다. 이들은 음악과 토크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만들 계획이다.

공연은 파스텔 뮤직의 콘셉트 컴필레이션 앨범 '사랑의 단상 챕터5. 디 레터 프롬 나우어' 발매를 기념하는 이벤트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1부 파티는 '여자 사람을 부르다'를 테마로 싱어송라이터 단편선과 혼성 듀오 텐시러브 등 여성 뮤지션 3팀이 무대에 오른다.

2부 '그 남자에게 그 여자에게'에선 일렉트로닉 씬 대표주자 캐스커, 파니핑크에서 솔로로 변신한 홍재목, 신인 가수 아진이 출연한다. 마지막 3부 '남자, 사람을 외치다'에는 끝은·에피톤 프로젝트의 합동 무대, 신인 듀오 오오오, 모던팝·록 밴드 스트레이가 등장한다.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대림미술관은 파트너에게 편지를 써 온 관람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조선호텔 디럭스룸 숙박권을 선사한다. 솔로인 관람객들에게는 20만원 상당의 조선호텔 식음권을 증정한다. 감기에 걸린 입장객을 위한 카이어크만이 목도리로 준비됐다. 입장객 모두에게는 바카디 칵테일 1잔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팬의 사연을 받아 노래로 만든 파스텔 뮤직의 컴필레이션 앨범 '사랑의 단상'은 오는 16일 국내 음원사이트에 공개된다. 오프라인에서는 19일부터 앨범 구매가 가능하다. 예약은 11일부터 시작된다.

/선율진기자 [illegible]

소녀시대 도쿄돔 콘서트, 5만여명 열광

8인 체제로 첫 공연…日 아레나 투어 누적관객 55만명

8인 체제가 된 걸그룹 소녀시대가 첫 도쿄돔 콘서트를 성공리에 마쳤다.

소녀시대의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9일 오후 일본 도쿄돔에서 진행된 '걸스 제너레이션 더 베스트 라이브 앳 도쿄돔'에 5만여 명의 관객들이 몰려 전석 매진됐다고 10일 밝혔다.

일본 데뷔 4주년을 맞은 소녀시대는 이번 공연에서 그동안의 활동을 집대성한 무대를 펼쳐 현지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공연에서 소녀시대는 'GEE' '지니' '미스터 박시' 등 히트곡 릴레이와 '플라워 파워' '갤럭시 수퍼노바' 등 일본 발표곡을 불렀다. 한국 그룹 사상 최초로 오리콘 위클리 앨범 차트 2주 연속 1위에 오른 베스트 앨범 '더 베스트'에 추가 수록된 신곡 '쇼 걸스' '체인 리액션' '디바인'도 첫선을 보였다.

소녀시대는 "데뷔 때부터 꿈꿔왔던 도쿄돔 콘서트를 하게 돼 정말 행복하다. 이 무대는 팬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항상 응원해줘서 고맙다. 팬의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다. 앞으로도 팬과 함께 성장하는 소녀시대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소녀시대는 올해 일본 세 번째 아레나 투어 '걸스 제너레이션 러브 앤드 피스 재팬 써드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된 3차례의 아레나 투어는 누적관객 55만 명을 기록했다.

/김지민기자

MecenatTicket
www.MecenatTicket.com
메세나티켓
2014년 12월의 추천공연
누구든지 만원의 행복!
옥탑방 고양이
연애의 목적
나의 PS 파트너
올드미스 다이어리
애정빙자 사기극
개인교수 2
최고의 사랑
Love actually
사랑과 우정사이
라이어
말괄량이 길들이기
비뇨기과
해피 파파
놈놈놈
사춘기 메들리
보잉보잉
S다이어리

사극인 듯 사극 아닌 드라마

JTBC 새 드라마 '하녀들'

고려 말의 체제와 새 왕조의 질서가 혼재돼 있던 조선 건국 초기 실제 인구의 60%는 노비 신분이었다. JTBC의 새 드라마 '하녀들'의 조현탁 감독은 "(노비들의 삶은) 지금을 살아가는 샐러리맨들과 다를 게 없다. 우리 드라마는 노비들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이야기"라고 작품을 소개했다.

10일 서울시 중구 호암아트홀에서 '하녀들'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조현탁 감독을 비롯해 오지호·정유미·김동욱·이이경·전소민·이채영 등 출연배우들이 함께했다.

드라마는 조선시대 노비 특히 하녀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극의 중심에는 정유미가 연기하는 국인엽이 있다. 개국공신 세도가의 외동딸인 국인엽은 양반대 규수에서 하루 아침에 하녀로 전락하는 인물이다. 복잡미묘한 감정선 연기가 필요하다.

정유미는 "부담감을 많이 안고 시작했다. 처음에는 인엽을 연기하며 복잡한 감정선을 잡는 게 쉽지 않았다. 촬영을 하면서 몰입할 수 있었다"며 "강남 한복판에 있는 드라마 포스터 중심에 내 얼굴이 있더라. 신기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각오를 전했다.

노비 전문 배우 오지호는 고려부흥 비밀결사단의 첩보원인 무명 역을 맡아 카리스마 있는 연기로 극에 몰입감을 더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오지호와 함께 호흡한 이채영은 실제 조선 최고의 기녀였던 가희아 역을 맡아 긴장감을 더할 예정이다.

오지호는 "극중 무명은 노비지만 양반들에게 인정을 받아 중요한 심부름을 많이 한다. 내 능력과 가희아의 명성이 합쳐져 큰 힘이 발휘된다"며 "무명과 가희아는 극 중에서 과거 무슨 일을 함께 했던 관계가 들어지게 된다. 가희아는 욕망이 가득하지만 무명은 그것을 받아 주지 않는다"고 말해 호기심을 자극했다.

'하녀들' 이이경, 김동욱, 정유미, 조현탁PD, 오지호, 전소민, 이채영(왼쪽부터). /JTBC 제공

김동욱은 검은가 역으로 부드러운 매력을 선보인다. 예상을 잘을 것으로 예상되는 캐릭터다. 감초 역할을 할 이이경(애은서 역)과 전소민(단지 역)의 호흡도 기대된다. 사극 특유의 다소 무겁고 진지한 이야기에 재미를 더해 발랄한 전개를 이끈다.

'하녀들'은 오는 12일부터 금토드라마로 오후 9시 45분에 편성됐다. 타 방송사의 프로그램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탁 감독은 "(타 방송사 프로그램들은) 원래부터 잘 되고 있어서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우리는 드라마를 재미있게 잘 만들고 있다. 실제 완성된 작품도 보면 재미있을 것"이라며 "슬프면서도 웃기다. 사극이지만 현실감 있는 드라마다. 정형화된 구태의연함이 보이지 않는다.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우혁, 유오성의 오른팔

'스파이'로 한방 신고식

모델 출신 신인 배우 우혁(사진)이 KBS2 금요드라마 '스파이(가제)'에 출연한다.

우혁은 스파이 대식 국단 공작원 기철(유오성)의 오른팔 정호 역을 맡았다. 그는 "대단한 선배들과 함께 훌륭한 작품에 출연하게 돼 기쁘다"며 "연기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작품이라 매우 특별하다. 배우로 성장하고 시청자에게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우혁은 1020세대 여성들 사이에서 각광받는 모델로 이미 다수의 패 카테가 있다. 서울 패션 위크 등 각종 패션쇼와 광고에서 활약한 그는 올해 4월 MGB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배우로 전향했다. 이후 단편 영화 '노스탤지어'에 출연한 바 있다.

김재중·유오성·배종옥 등이 출연하는 '스파이'는 이스라엘 드라마 '마이스'가 원작이다. 전직 간첩인 엄마와 국정원 요원 아들의 이야기를 그린 가족 첩보 스릴러로 사랑하는 가족 사이에서 서로 속고 속이는 내용을 담는다. '하이스쿨 러브온' 후속으로 내년 1월 방송될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드라마 OST 부르는 배우

'피노키오' 박신혜·'미생' 임시완… "몰입감 더할 것"

배우 박신혜와 임시완이 출연 중인 드라마 OST에 직접 참여했다.

박신혜는 SBS 수목드라마 '피노키오' OST '사랑은 눈처럼'을 불렀다. 11일 정오 공개되는 '사랑은 눈처럼'은 '피노키오'의 네 번째 OST다. 모던 록 계열의 노래로 겨울 느낌의 멜로디가 귀를 사로잡는다. 박신혜의 친오빠인 기타리스트 박신원과 인디밴드 로코베리의 로코·코난이 공동으로 작곡하고 로코베리가 편곡을 했다.

박신혜는 '피노키오'에서 거짓말을 하면 딸꾹질을 하는 극 중 설정인 피노키오 증후군에 걸린 수습기자 최인하를 연기한다. '사랑은 눈처럼'은 최달포(이종석)를 향한 최인하의 애틋한 사랑을 담은 노래다. 최달포의 악연으로 두 사람은 삼촌과 조카 관계가 돼 감정을 숨겨야만 하는 로맨스를 펴고 있다.

OST의 한 관계자는 "배우들이 직접 OST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지만 박신혜처럼 철저히 준비해오는 배우는 드물다"며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잘 전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tvN 금토드라마 '미생'에서 장그래로 열연 중인 임시완은 '미생'의 다섯 번째 OST '그래도 그래서'를 발표한다.

오는 12일 정오에 공개되는 '그래도 그래서'는 임시완이 생애 처음으로 작사·작곡하고 노래까지 부른 곡이다. '미생' 장그래의 애절한 마음을 표현했다. '장그래를 위한 장그래의 안단테'라는 부제로 시청자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OST 제작사 측은 "'그래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살고 있어요'라는 가사가 있다"며 "임시완이 장그래를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한 곡이다. 드라마의 몰입감을 더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효진기자 jeon@metroseoul.co.kr

KBS 올해의 시민 기자 선정

KBS가 올해의 시민 기자를 선정했다.

2014 KBS 시민기자상 시상식은 지난 9일 오후 3시 KBS 본관에서 열렸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KBS 시민기자상은 영상제보와 뉴스제보 두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최우수 제보상 1명을 비롯해 뉴스제보 부문(금상·은상·동상 각 1명) 3명, 영상제보 부문(금상·은상·동상 각 1명)3명까지 모두 7명을 선정한다.

KBS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한 시민기자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제보를 바탕으로 제작된 뉴스를 전부 검토해 수상자를 결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소정의 상금이 주어진다.

올해 최우수 제보상은 구건표 씨가 받았다. 구 씨는 군대 내 폭력으로 식물인간이 된 장병이 19개월 만에 깨어난 사연을 제보했다.

뉴스제보 금상은 북한군 탈영과 훈련 거부 내용이 담긴 북한군 문건을 제보한 장세율 씨, 영상제보 금상은 남부지방 집중 폭우 당시 급류에 휩쓸려 가는 버스를 촬영해 제보한 김부환 씨가 받았다.

뉴스제보 은상은 출근길 버스 내 각수 폭행을 알린 박민지 씨, 동상은 '후임병 폭언 관심병사' 트럭 몰고 탈영'을 제보한 한지원 씨가 수상했다. 이선화 씨는 '사육 아파트 화재 구조 현장'을 촬영해 영상제보 은상을, 장국원 씨는 '성남 야외 공연장 환풍구 붕괴 현장' 화면을 제보해 동상의 영예를 안았다.

KBS는 "제보 시스템으로 시청자가 참여하는 뉴스 제작을 활성화해 시청자와 소통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효진기자

겨울 스크린 ★들의 귀환으로 채운다

김혜자·강혜정·최민수·유지태, 오랜만의 복귀

올 겨울 스크린에서 활약을 기다려온 스타들이 대거 컴백한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으로 돌아오는 김혜자·강혜정·최민수 그리고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의 유지태가 그 주인공이다.

오는 31일 개봉하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사라진 아빠와 집을 되찾기 위해 개를 훔치려는 소녀의 기상천외한 도둑질을 그린 코미디 영화다. 미국 아동작가 바바라 오코너의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이 원작이다.

영화는 한 동안 스크린에서 만나기 힘들었던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제를 모았다. 김혜자는 2009년에 출연한 봉준호 감독의 '마더' 이후 5년 만의 스크린 컴백작으로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선택했다. 우아한 노부인 역을 맡아 국민엄마 이미지를 벗고 카리스마를 발산했다.

김혜자는 "'마더' 이후 하고 싶은 역할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보고 이야기가 참 아름다웠고 여러 가지가 담겨 있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루의 엄마로 사랑 받은 강혜정도 이번 영화로 5년 만에 스크린을 다시 찾는다. 극중 역할도 철부지 엄마다. 강혜정은 "실제 한 아이의 엄마라는 것이 엄마 역할에 도움이 됐다. 시나리오도 매력적이었다"고 말했다.

MBC 월화드라마 '오만과 편견'에 이어 출연 중인 배우 최민수도 만날 수 있다. '홀리데이' 이후 무려 8년 만의 영화다. 미스터리한 노숙자 역할로 아역배우들과 환상적인 연기 호흡을 맞췄다. 그는 "행복하게 노숙자로 세 달을 살았다. 실제 내가 살아가는 모습대로 보여줬다. 세상이 모르는 최민수가 그 안에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영화감독으로 변신해 지난해 첫 장편영화 '마이 라띠마'를 발표했던 유지태도 4년 만에 배우로 관객과 만난다. 31일 개봉을 앞둔 실화 바탕의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에서 유지태는 갑상선암으로 무대에서 내려와야 했으나 절망을 극복하고 다시 무대에 서게 되는 테너 배재철을 연기했다.

영화는 1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일본, 유럽 등 해외 로케이션을 통해 웅장한 오페라 무대를 재현했다. 제작비로 75억원이 투입되는 등 한국 음악영화의 새로운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지태는 "시나리오를 받고 읽자마자 이건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실제 인물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 있는 작품이라 설렜다"고 출연 계기를 밝혔다. 또한 "많은 이들이 영화의 감동에 전염되면 좋겠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하정우, 세 아이의 아빠?

'허삼관' 가족 포스터 공개

배우 하정우가 세 아이의 아빠가 됐다. 영화 '허삼관'의 가족 포스터를 통해서다.

'허삼관'은 천하태평 성격에 뒤끝도 있고 버럭하는 성질까지 지닌 허삼관(하정우)이 절세미녀 아내와 세 아들을 얻으며 맞닥뜨리는 일생일대의 위기를 그린 영화다.

이번에 공개된 포스터는 극중 부부로 호흡을 맞춘 하정우와 하지원, 그리고 세 아들 일락·이락·삼락의 모습을 담았다. 환한 웃음의 하지원과 세 아들, 그 속에서 얼굴을 잔뜩 찡그린 하정우의 모습이 독특한 가족애를 느끼게 한다.

'허삼관'은 중국을 대표하는 작가 위화의 소설 '허삼관 매혈기'를 영화화한 작품으로 하정우가 감독과 각본, 연출을 도맡았다. 내년 1월 15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노부부 이야기…잔잔한 흥행

'님아 …' 할리우드 대작 속 선전 중

다큐멘터리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할리우드 대작들 사이에서 잔잔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27일 개봉한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개봉 12일째인 9일까지 누적 관객 수 30만5187명(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을 기록했다.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과 '인터스텔라'에 이어 박스오피스 3위를 지지하며 선전 중이다.

영화는 개봉 7일 만에 10만 관객을 돌파한데 이어 11일째 24만 관객을 넘어서며 영화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화제작이었던 한국 독립영화 '한공주'는 물론 한국 독립영화 사상 최고의 관객 수를 기록하고 있는 '워낭소리'보다도 빠른 흥행 속도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89세의 감계열 할머니와 98세의 조병만 할아버지 부부의 이야기를 담았다. 자녀들을 도시로 모두 떠나보내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던 두 노부부가 또 다른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을 그렸다.

/장병호기자

'강남 1970' 내년 1월 21일 개봉

이민호·김래원 주연의 액션 느와르 영화 '강남 1970'이 내년 1월 21일 개봉을 확정했다.

'강남 1970'은 1970년대 서울 개발이 시작되던 강남 땅을 둘러싼 두 남자의 욕망과 의리, 배신을 그리는 작품이다. '말죽거리 잔혹사' '비열한 거리'에 이은 유하 감독의 '거리 3부작' 완결편이다.

당초 12월 중 개봉 예정이었던 '강남 1970'은 내년 1월 21일로 개봉일을 확정하고 2015년 새해 극장가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개봉일 확정과 함께 이민호, 김래원의 캐릭터를 담은 스틸도 공개됐다. 극중에서 두 배우는 고아 출신으로 넝마주이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친형제보다 더 형제 같은 종대와 용기 역으로 호흡을 맞췄다.

이민호는 "스무 살 때 처음으로 영화 촬영 현장 견학을 간 곳이 어린신부 현장이었다. 김래원은 멀찌감치에서 바라보기만 했던 선배라 마음에 애틋함과 존경스러움이 있었다. 이번 작품으로 함께 연기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좋았다"고 밝혔다.

/장병호기자

마카다미아가 무엇이기에…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요즘 마카다미아라는 견과류가 화제다. 세상을 소란스럽게 만든 사건의 빌미가 되면서 도대체 어떤 견과류이기에 비행기 일등석에서 제공하는 지 궁금하다.

주로 땅콩을 먹는 우리들 서민에게는 낯선 견과류 같지만 반드시 생소한 것만도 아니다. 한때는 마카다미아라는 이름 대신 하와이안 너트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때문에 알게 모르게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혹은 쿠키에 들어 있는 마카다미아를 먹었을 수 있다.

마카다미아는 여러 가지로 독특한 견과류다. 먼저 이름부터 특별하다. 어디 동화 속 나라나 예쁜 공주이름 같지만 사실은 호주의 과학자 이름이다.

숲속에서 마카다미아 나무를 발견한 오스트리아 출신의 호주 식물학자가 1858년에 친구이자 동료였던 멜버른 대학교의 교수로 화학자이며 의학박사였던 존 마카담(John Macadam) 박사의 이름을 따서 마카다미아가 됐다.

마카다미아는 호주 북동쪽 퀸즈랜드가 원산지다. 1840년대에 처음 발견됐지만 다른 곳에는 없는 새로운 나무라는 사실은 1858년에야 알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식용 열매인지조차 몰랐기에 주로 열매를 장식용으로 사용했다.

마카다미아 나무는 1881년 윌리암 퍼비스라는 사람이 하와이에 옮겨 심었다. 이때도 식용 견과류로 심은 것이 아니라 하와이의 바닷바람으로부터 사탕수수를 보호하기 위한 방풍림으로 심었다.

그러다 나무가 하와이에 널리 퍼졌고 열매가 인기를 얻으면서 한때 하와이에서 세계 수요량의 95%를 수출했다. 때문에 하와이안 너트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호주가 최대 생산국이 되면서 마카다미아로 이름이 바뀌었다.

마카다미아를 흔히 견과류의 황제라고 한다. 맛있고 값 비싸고 몸에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식 치고 적당히 먹었을 때 몸에 좋지 않은 식품은 없다. 맛이 있고 없고는 주관적 판단이다. 그러니 분명한 것은 값이 비싸다는 것인데 열대작물로 재배지역이 호주와 하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음식문화평론가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4				3		7	
	6		8	9				
		3						9
3				8				4
		8		6		1		
9				3				2
1						5		
				1	5		4	
	3		7				9	1

스도쿠 정답

8	7						1	
2				4				
3			9					
4		5	1				9	2
				7				
7	8				2	6		4
					8			3
				2				1
	2						4	9

문제제공 = 보누스
(연사 스도쿠 프리미어)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재벌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직장 퇴직하는데 진로 고민입니다
재충전 기회삼으면 봉급생활 가능

Q 주론 단원 남자 51년 10월 20일 음력 밤 10시20분

직장생활을 오래하였는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그만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51년 남자 10월 20일 밤 10시 20분생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좋지 고민됩니다. 재취업을 원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돈이 안 모아지는 사주라서 조금 있는 돈도 잃을까 걱정입니다. 은퇴 후 진로가 고민입니다. 취업운과 재물운이 궁금합니다.

A 귀하의 명조(사주구조)는 갑목으로 '여름에 물위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빛이 낮으로 변하고 겨울이 여름으로 바뀌어 만물이 소생하고 활발히 움직이니 귀(貴)한 것입니다.

천성이 귀인을 돕어 선하고 총명한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탐관탐재(貪官貪財)로 2015년 재물에 대한 손실의 운세입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혁견과 고난을 믿고 일어서는 사주이니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일지(日支)에 충살(沖殺)하는 흉함을 받고 있어서 재취업이나 독자적인 사업이 잘 될 것 같다가도 흉운은 뜻대로 되지 않는 불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래 74세까지 봉급생활 운이니 기회를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잠시간의 어려움은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잠깐 쉰다는 생각으로 지내세요. 올해 직장운이 묶여 있으며 재운도 충살을 받고 있으니 성실히 다녀야 할 것입니다.

천을귀인(天乙貴人 귀인의 도움)이 없어서 독특이 주된고 생명지에 지살(地殺)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 지혜와 이해심이 깊으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동시에 조급하고 인색하여 변하도 심합니다. 재능이 있는데 회계로 인한 손실을 입기 쉬우니 회계보는 하나는 들어 두는 것이 이롭습니다.

식상(食傷 내가 생해주는 오행)이 많아 신념과 현실의 괴리가 있을 수 있으며 매사가 지연되는 것이 암시됩니다. 조금씩이 실패의 요인이므로 느긋함이 필요하며 태극귀인(太極貴人)이 있어서 증제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건강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재물도 취할 수 있는 것인데 수화교전(水火交戰)의 상으로 기관지 비뇨기의 질환을 불러 올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2월 11일 (음 10월 20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안심 말을 기회가 온다. 60년생 재묵은 논쟁은 꺼내지 말라. 72년생 갈등만 있는 계획은 없는 게이다. 84년생 거울잡 지는 야심 적워라.

소 49년생 자녀 말에 귀 기울여라. 61년생 되는 사람은 뭐를 해도 되는 게이다. 73년생 부하의 일에 개입하지 말라. 85년생 구직자는 희소식이 기다린다.

호랑이 50년생 박수 받을 일이 생긴다. 62년생 좋은 소식 정보를 먼저 잡라. 74년생 인생에 주의해야 할 검사 생긴다. 86년생 뛰는 동료를 눈여겨보라.

토끼 51년생 부적절한 돈은 받지 말라. 63년생 너무 신중하면 기회는 줄 건니간다. 75년생 문제 해결하려면 공통점 찾아라. 87년생 상큼은 뜻 깊은 만남이 있다.

용 52년생 기적이 화목하니 즐겁다. 64년생 산토끼보단 집토끼 지는데 손 울려라. 76년생 주도한 일은 탄력이 붙는다. 88년생 시간 관리에 신경 써라.

뱀 53년생 초고협 일 있어도 참아라. 65년생 투자는 미루는게 이롭다. 77년생 배우자가 왜 짜증내는지 파악하라. 89년생 연인과 말은 잘 통한다.

말 42년생 생각도 못한 공돈 생긴다. 54년생 대화의 포인트 잘 찾아라. 66년생 어렵지만 꿈이 자란 적이니. 78년생 새 꿈을 키우는 재미가 솔솔~

양 43년생 위험한 사람은 멀리하라. 55년생 진분 다지기 퇴뭐이 필요하다. 67년생 취중에 흥동감 표시 않도록 조심~ 79년생 상사에 원하던 대답 듣는다.

원숭이 44년생 일생심이 필요한 날이다. 56년생 결심한 일은 밀고 나가라. 68년생 남쪽이 길한 방위이다. 80년생 한심이 어려워도 꿈은 포기하지 말라.

닭 45년생 어려울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57년생 공돈이 생겨 한턱 쏜다. 69년생 가정의 버팀목 의할에 충실할 것. 81년생 일이 뜻대로 풀려 즐겁다.

개 46년생 가정 버팀목이 되어 기쁘니. 58년생 마인을 마무리부터 하라. 70년생 기다리던 사람은 다타난다. 82년생 취중에 말실수 않도록 조심할 것.

돼지 47년생 한 가지 일만 생각하라. 59년생 빈 집에 소가 들어온 격이라. 71년생 대접 받으려면 자신 현실이 낮춰라. 83년생 새 꿈이 생겨 의욕이 넘친다.

반전 노렸지만…리버풀, 챔스 16강 실패

바젤과의 경기 1-1 무승부 조 3위로 탈락
레알 마드리드 역대 두 번째 조별 예선 전승

반전을 노렸던 리버풀(잉글랜드)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끝내 고배를 들었다.

리버풀은 10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2014-2015 UEFA 챔피언스리그 B조 조별리그 마지막 6차전 바젤과의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이날 경기로 리버풀은 승점 5(1승2무3패)에 그치며 조 3위에 머물렀다. 16강 진출의 마지노선인 조 2위 자리는 바젤(승점 7)이 가져갔다.

B조에서는 선두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리버풀과 바젤, 루도고레츠(불가리아)가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다.

리버풀은 홈에서 바젤에 이겨야 2위로 올라설 수 있는 처지였다. 그러나 이날 경기에서 전반 25분 파비안 프라이에게 선제골을 빼앗기면서 승세를 놓쳤다. 후반 16분에는 라자르 마르코비치가 상대 선수의 얼굴을 쳐 퇴장당하는 위기도 겪었다.

그나마 주장인 스티븐 제라드가 후반 36분 프리킥으로 동점골을 뽑아내 리버풀에 희망을 안겼다. 그러나 승부를 뒤집지는 못하고 결국 좌절했다.

또 다른 B조 경기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루도고레츠를 4-0으로 완파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조별리그에서 6전 전승의 기록도 세웠다. 2011-2012시즌에 이은 두 번째 조별리그 6전 전승 기록이다. 챔피언스 조별리그에서 6전 전승을 두 차례나 기록한 건 레알 마드리드가 최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19경기에서 내리 승리를 챙기며 스페인 구단 사상 공식 경기 최다 연승 신기록도 세웠다. 이전 기록은 FC바르셀로나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월까지 기록한 18연승이었다.

이날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 20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페널티킥을 시작으로 가레스 베일, 알바로 아르벨로아, 알바로 메드란이 차례로 득점을 기록했다.

A조의 유벤투스(이탈리아)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와의 경기에서 0-0으로 무승부를 거뒀다. 승점 10을 기록해 올림피아코스(승점 9·그리스)의 추격을 따돌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승점 13)에 이어 16강에 합류했다.

D조에서는 보르시아 도르트문트(독일)가 안더레흐트(벨기에)와 1-1 무승부를 거두고도 조 1위를 지키며 16강에 진출했다. 같은 조 아스널(잉글랜드)은 갈라타사라이(터키)를 4-1로 대파했으나 도르트문트를 앞지르지 못했다. 두 팀 모두 승점 13을 챙겼으나 골득실에서는 도르트문트가 아스널보다 앞섰기 때문이다.

/장병호기자 solanio@metroseoul.co.kr

10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2014-2015 UEFA 챔피언스리그 B조 조별리그 마지막 6차전에서 바젤에 진 리버풀(잉글랜드)이 좌절에 빠져 있다. /AP·뉴시스

김효주, KLPGA 2015시즌 개막전 출격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장하나·김혜윤 등도 참가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를 평정한 김효주(19·롯데)가 새 시즌 개막전에 출격한다.

김효주는 오는 12일부터 사흘 동안 중국 선전의 미션힐스골프장(파72·6387야드)에서 열리는 2014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총상금 55만 달러)에 출전한다.

이 대회는 올해 열리지만 2015년 시즌 대회로 편입돼 기록된다. 올해 마지막 대회이자 내년 시즌 첫 대회다.

김효주는 올 시즌 KLPGA 투어에서 5승을 올리고 12억원이 넘는 상금을 차지했다. 상금왕·대상·다승왕·최저타수왕 등 4관왕에 오르는 등 최고의 활약을 보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올해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 시즌을 힘차게 출발할 발판을 만들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해 내년 LPGA 출전권을 확보한 만큼 김효주는 2015년 더 많은 추진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대회는 김효주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지난 2012년 이 대회에서 프로로 데뷔해 첫 우승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승자인 장하나(22·비씨카드)는 이 대회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2010년과 2011년 2년 연속으로 이 대회에서 우승한 김혜윤(25·비씨카드)도 출전해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중국 선수들을 포함해 총 108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우승상금은 11만 달러다. /장병호기자

지난 7월 막내린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한 독일 내표팀 /AP연합뉴스

올 최고 이슈는 '브라질 월드컵'

페이스북이 꼽은 2014년 글로벌 토픽 1위 올라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2014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네티즌의 관심을 받은 주제로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를 꼽았다.

페이스북이 10일 발표한 2014년 총정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브라질 월드컵은 모든 분야를 통틀어 이용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로 집계됐다.

글로벌 토픽 상위 10위 안에는 1위에 오른 브라질 월드컵을 포함해 미국프로풋볼(NFL) 결승전 슈퍼볼과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이 각각 8위와 10위에 랭크됐다.

운동선수 중에서는 미국프로농구(NBA)의 르브론 제임스가 페이스북에서 올 한해 가장 뜨거웠던 선수로 기록됐다. 르브론 제임스는 올해 마이애미 히트를 떠나 '친정'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로 돌아와 많은 화제가 됐다.

르브론 제임스의 뒤를 이은 2위는 현역 은퇴를 선언한 미국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의 유격수 데릭 지터다. 권투 선수 플로이드 메이웨더,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 리오넬 메시가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NFL 덴버 브롱코스의 쿼터백 페이튼 매닝은 5위에 올랐다.

/장병호기자

프로배구 전적 (10일)

도로공사	2	3	흥국생명
OK저축은행	3	2	대한항공

프로농구 전적 (10일)

모비스	18	13	20	[illegible]		78
KT	15	14	22	16		67
전자랜드	22	23	8	25		78
동부	22	17	15	15		69
하나외환	[illegible]	4	20	18	15	[illegible]
삼성	13	19	25	14	12	83

"제주 전지훈련서 '깜짝 발탁' 할 수도"

슈틸리케 감독

울리 슈틸리케(독일)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아시안컵에 나설 새로운 선수의 '깜짝 발탁' 가능성을 밝혔다.

10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슈틸리케 감독은 "제주 전지훈련을 마지막까지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 훈련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진지한 태도로 임하는 선수가 있다면 마지막에 깜짝 발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표팀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에서 아시안컵 대비 훈련에 들어간다. 한국, 중국, 일본 리그에서 뛰는 선수 28명이 소집됐는데 그 중 13명이 대표팀에 처음 발탁된 신예 선수들이다. 유럽 무대에서 뛰는 해외파는 한 명도 차출되지 않았다.

슈틸리케 감독은 "선수단 구성에서 공격적인 선수, 수비적인 선수가 잘 어우러져야 하듯 경험이 있는 선수와 어린 선수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우리는 배가 고픈 선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병호기자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처럼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